

I. 서 론

북한 사회에 있어서 생활의 대부분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단체의 조직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북한에는 100여개가 넘는 정치사회단체가 연령별, 성별, 직업별, 업무별로 다양하게 그리고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 주민(7세에서 65세, 여자는 60세까지)은 누구나 1~2개의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 주민은 일반적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3시간씩 1주일에 4~5일은 단체의 조직생활을 한다.

이처럼 조직생활이 강조되는 것은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혁명적으로 단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로 규정되어 ‘조직생활을 떠나서는 정치적 생명도 혁명성도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활동을 계획된 공산주의 교육의 일부분으로 보고

청소년들에게 단체활동을 통한 조직생활을 강조한다. 청소년단체 활동사업은 ‘공산주의 인간’형성을 위한 청소년사업의 주요한 과제가 되며 청소년들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하여 청소년교육과 훈련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박성희, 1991).

조직생활이 모든 생활의 기간을 이루는 사회체제속에서 북한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정치사회단체들과 접할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된다. 유아기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의 조직 생활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만7세가 되면 조선소년단에 가입하여 13세까지 활동한다. 14세부터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노청)에 가입하여 30세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인 경우에는 조선직업총동맹(18세에서 65세, 여자는 60세)에, 농민인 경우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 여성인 경우에는 조선여성동맹(18~55세 전여성)에 가입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붉은 청년근위대(14세에서 17세), 교도대(17세에서 40세, 여자 17세에서 30세), 인민경비대(17세에서 24세) 등 민간군사조직에 편성되어 군사교육과 훈련도 받는다.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결과는 청소년들에 대한 평가자료가 되어 그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사노청의 활동내용은 상급학교의 진학을 비롯하여 군대입대, 취업, 승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노동당 가입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 참여의욕을 보이지 않거나 열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는 엄격한 문책을

당한다. 심한 경우에는 조직에서 탈퇴시키는 데, 이런 조치를 당하면 학생으로서의 자격까지 박탈될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부분 생활과 활동들이 조직화, 집단화되어 있고 집단활동의 결과가 장래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청소년들이 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청소년단체가 그 어느 기관이나 조직보다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청소년단체의 역할에 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적 전제에서 북한 청소년단체의 활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연구대상인 청소년단체의 조직적 형태와 특성에 관한 부분과 청소년단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청소년활동의 성격과 유형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북한 청소년단체활동 그 자체를 평가하려는 것이아니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북한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평가나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가능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관련연구논문과 문헌을 비롯하여 귀순자의

증언 및 체험기, 북한 방문자들의 방문기, 북한의 소설,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1993년 북한 청소년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김남준, 김성, 안혁, 이창수, 한성호 등 10여명의 귀순자들과의 면담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북한연구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료의 부족과 신뢰성 때문에 북한 청소년단체활동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남북한간의 특수한 관계때문에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고 북한당국의 정책적인 중요성으로 청소년관련자료와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거의 모든 자료와 정보가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조작된 선전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북한 청소년단체활동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자료의 객관성, 신뢰성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한 귀순자면접과 북한 방문기 또는 체험기의 분석에도 주거이전과 여행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귀순자나 방문자들이 갖는 제한된 생활과 경험으로 한계가 있다. 또 하나의 한계점은 북한 청소년연구가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선행연구자료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하여 본 연구는 북한 청소년단체활동에 관한 학문적 객관성이나 명확한 이론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시론적인 접근에 그친 기초연구의 성격에서 벗어 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연구가 극히 미약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또한, 본연구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움으로써 남북한 청소년간의 이질화를 극소화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통일지향적인 청소년정책의 방안뿐만아니라 통일후의 삶을 대비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II. 북한 청소년단체의 현황

조직생활이 모든 생활의 기간을 이루고 있는 집단주의체제인 북한 사회에서 북한 청소년들은 1~2개의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북한에는 100여개의 다양한 사회단체가 조직되어 있지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내용만을 전개하는 순수한 청소년단체로는 조선소년단, 사회주의로동청년연맹(사로청) 그리고 붉은 청년근위대를 들 수 있다¹⁾ 북한 청소년단체의 목적과 의의, 규모, 활동사업, 조직구조, 가입과 탈퇴 등 조직특성과 현황을 각 단체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붉은 청년근위대는 특정청소년(고등학교 5~6학년)만을 대상으로 군사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만을 수행하는 특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한 청소년단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단체의 조직성격과 활동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하는 의미에서 붉은 청년근위대에 대한 설명을 개괄적으로나 첨가하고자 한다.

1. 조선소년단

1) 소년단의 목적과 활동사업

조선소년단은 북한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가입하는 사회단체로서 만 7세에서 13세까지의 학생(인민학교 2학년에서 고등중학교 4학년)들로 조직되어 있다. 조선소년단의 총 단원수는 약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선소년단은 1946년 6월 6일 김일성에 의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결성되어 활동한 새날 소년동맹과 항일아동단의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한 청소년들의 혁명적인 대중조직으로 창립되었다(동아일보, 1995).

조선소년단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노동당과 김일성부자에 끝없이 충성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청년전위’로 양성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아래 소년단원들은 김일성에게 끝없이 충직한 아들 딸,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돕는 꼬마 건설자, 계급적 원수를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하는 혁명적 전사 등의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선소년단은 정치사업, 학습회의, 행사동원 등을 통한 공산주의사상 주입, 학생들의 규율상태와 집단행동 통제, 학생들의 공산주의적 윤리도덕관 확립, 경제현장에 노력동원

된 학생들에 대한 감독통제, 학생들의 개인 생활지도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서동익, 1987:70)

2) 소년단의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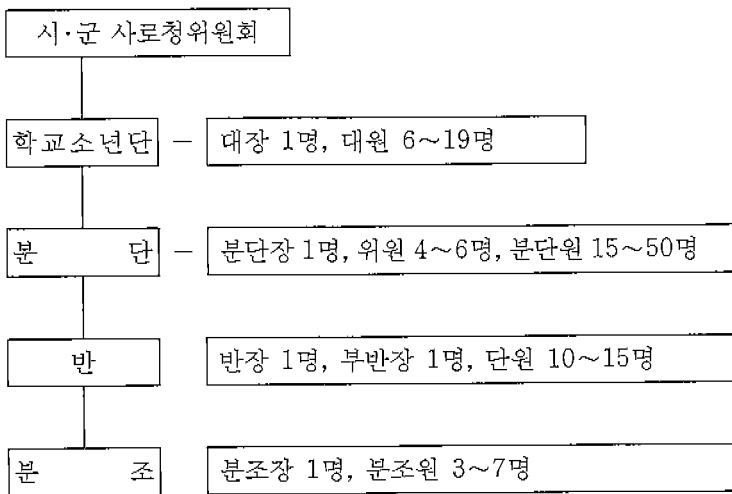
조선소년단은 노동당 외곽단체인 사로청 산하단체로서 독자적인 기구가 없이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내에 속해 있다. 사로청중앙위원회가 노동당의 위임에 의해서 소년단지도사업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소년단원들이 자라나면 당의 후비대가 되는 사로청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로청원은 소년단원들의 일상생활을 잘 보살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소년단은 해당 시, 군 사로청 소년부의 지도하에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조선소년단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에만 조직되어 있고 학년, 학급별로 분단조직이 되어 있다. 각 학교에는 학교 소년단(대)(대장 1명, 대원 6~19명)이 있고, 그 밑에 학년단위로 분단(분단장 1명, 위원 4~6명, 분단원 15~50명), 학급단위로 반(반장 1명, 부반장 1명, 위원 3~5명, 반원 10~15명), 학급내 소조단위로 분조(분조장 1명, 3~7명분조원)로 구성되어 있다(북한연구소, 1983:272).

조선소년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학급집단으로 소년단의 활동은 학급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²⁾. 학급에는 교과학습활동을 위한 학급운영집단과 소년단 활동을 위한 청소년단체 운영집

단의 2원적인 조직체가 있다. 학급운영조직은 학급반장, 학급기수위원, 분단장으로, 단체활동을 위한 조직은 분단위원장(조직표

〈그림 1〉 조선소년단 조직



자 료 : 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1317.

에는 반장으로 표시), 기수위원, 분조장들로 이루어져 각각 맡은 활동을 한다.

학급에서는 소년단조직을 꾸리고 이끌어 가면서 지도원과 학생들사이에서 그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분단위원장의 지

2) 학교내에 조직된 사로청역시 소년단과 마찬가지로 학급조직을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된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로청의 조직구조설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생략하고자 한다.

위가 가장 높다. 이러한 학생간부들간의 서열은 매우 뚜렷하여 그들이 착용하는 표장에 잘 나타나 있다. 학급서열순으로 분단위원장은 별 3개에 2줄의 표장을, 학급반장은 별 3개에 1줄, 기수위원은 별 2개에 2줄, 학급기수위원은 별 2개에 1줄, 분조장은 별 1개에 2줄, 그리고 분단장은 별 1개에 1줄의 표장을 찬다.

이러한 소년단조직은 해당학교의 소년단(또는 사로청)지도원이 관장한다. 학교교육 관련업무와 사회정치생활 관련업무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북한 학교행정의 2원적 체계에 따라, 각 학교에는 교과목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단체활동을 전담하는 지도원이 있다. 지도원은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키우고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양과 통제를 책임지면서 단체활동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자체학습과 생활지도도 담당한다. 자격과 근무연한 등의 기준에 따라 위계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지도원은 학교의 청소년단체 사업을 위하여 교원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와 역할이 일반교원보다 훨씬 높다.

지도원에는 소년단지도원과 사로청 지도원 두 유형의 지도원이 있으며, 소년단과 사로청조직이 함께 조직되어 있는 고등중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년단지도원은 사로청지도원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소년단지도원은 당 또는 사로청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중 특별히 당과 조직사업에 열성적인 자로서 지역사로청위원회에서 임명되어 소년단을 담당한다. 각 학교 사로청활동은 대부분 해당학교 사로청위원장이 담당하나, 사로청 지도사업 담당교원은 시·군(구역)사로청위원회로부터 임명·배치되기도 한다.

(서동익, 1987). 또한, 사범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 소년단지도원과 사로청지도원 양성과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몇 년간의 교직생활후에 금성정치대학 소년단지도원양성반을 나온 교원을 지도원으로 임명하기도 한다.

3) 소년단의 입단

해당연령층의 청소년 모두가 소년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단의 입단과 탈퇴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마다 신규가입자들을 위한 소년단입단식이 성대하게 열리며, 입단시에는 ‘나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입단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단서약서에 1977년부터 ‘대를 이은 충성’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서동익, 1987:51).

소년단입단은 주로 김일성생일(4월 15일), 김정일생일(2월 16일), 그리고 소년단 창립기념일(6월 6일) 등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서 거행되는 입단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는 소년단원과 관계자들뿐만아니라 총리를 비롯하여 당비서, 부주석, 군총참모장, 사로청위원장 등 당·정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하며 김일성명의로 축하문이 전달되는 등 대회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 대회는 주로 김일성부자와 당에 대한 충성심제고와 현북한체

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고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세대대들에게 충성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소년단입단식은 지방에 따라 다소 다르게 진행된다. 평양에서의 입단식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앞에 세워진 김일성의 대형동상앞이나 김일성경기장, 평양체육관 등에서 개최되는 ‘전국연합단체대회’를 통하여 전국의 모범소년단원들과 관계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주로 학교운동장에 마련된 식당에서 모든 교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당위원회 간부의 진행하에 이루어진다(서동익, 1987:50-52)

소년단입단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동지의 노래 등 김부자를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되어 사로청위원장이나 군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단상에 올라가 김일성부자의 충직한 충성동이, 효성동이가 될 것을 당부하는 경축사를 한다. 경축사가 끝나면 이어서 신규입단하는 학생들이 대열앞에 나가 다음과 같은 입단선서문을 낭독하는 입단선서가 이루어진다(내외통신, 90.6.15).

“나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께서 빛내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조선 소년단에 입단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대원수님과 지도자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원수님의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는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역세게 자라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입단선서에 이어 소년단의 상징인 붉은 넥타이와 뺏지을 다는 의식이 진행된다. 당 간부나 학교교원들이 나와서 소년단넥타이를 입단하는 학생들의 목에 매어 주고 뺏지는 가슴에다 달아준다. 이런 절차가 끝나면 학생들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기를 앞세우고 4열로 대열을 맞추어 행진을 한다. 행진이 끝나면 다시 김일성부자의 칭송가를 부른다. 이러한 소년단 입단식이 끝나면, 각급 학교에서는 소년단조직의 예술공연, 민속놀이, 체육행사 등이 다양하게 개최된다.

소년단에 입단하고 나면 학생들은 소년단원으로서 각종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소년단원이 되기 전에는 용서되었던 사소한 잘못도 정치적으로 신중하게 분석처리되어 비판의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다른 모든 평가에 참작이 되고 때로는 처벌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4) 소년단의 상징

조선소년단은 여러 가지 행사와 의식, 상징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소년단원으로서의 명예감과 자긍심, 조직생활에 대한 성실성과 충실성 등을 길러 주기 위하여 노력한다. 특히, 소년단 창립일인 6월 6일은 소년단명절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창립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를 비롯하여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전국 소년단대회’, ‘전국 인민학교 체

육경기대회’, ‘소년호 탕크전달대회’ 등 각종 기념행사가 대규모로 전국에서 개최된다. 또한, 이 날을 기념하여 모범소년단원 및 지도원들을 선정하여 ‘김일성 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각각 수여한다.

각급 학교에는 소년단원들의 과외교양의 거점인 소년단실이 어느 시설보다도 훌륭하게 꾸며져 있다(김석범, 1993). 소년단실은 대개 한 학급이 들어 와 앉아서 학습과 모임을 할 수 있는 책걸상이 들어 있을 정도로 넓다. 벽에는 김일성초상화를 비롯하여 소년단휘장과 소년단구호, 소년단도록 등이 걸려 있다. 정면벽 좌우측에는 소년단의 외식활동에 필요한 큰 북과 작은 북을 나란히 세워놓는 북틀과 레이스가 달린 깃발과 몇개의 붉은 분단기돌이 꽂혀 있는 깃발보관틀이 있다.

소년단을 대표하는 상징들로는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비롯하여 소년단깃발, 소년단구호, 소년단원들의 경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소년단에 입단하면 항상 붉은 넥타이를 매고 다녀야 하며, 소년단행사때나 소년단원들이 만날 때마다 소년단구호를 외쳐야 한다. 붉은 넥타이는 붉은 색 바탕의 삼각형태로 된 스카프로서 항일 빨치산 대원들의 붉은 피를 상징하며 모든 사람들을 붉은 사상으로 몰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년단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년단구호로는 ‘공산주의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와 ‘김일성과 노동당을 목숨으로 보위하여 명령과 지지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를 들 수 있다(이 항구, 1988). 이 소년단 구호는 혁명적 대

사변을 맞이하기 위하여 항상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뜻이다. 소년단원들은 서로 만나면 부동의 자세로 서서 오른 손을 머리위 정면으로 높이 치켜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경례를 한다. 한 사람이 먼저 ‘준비하자’라고 소리치면 상대방은 ‘항상 준비’라고 소리친다.

2.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로청)

1) 사로청의 목적과 활동사업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로청)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조직으로써 현재 가맹원수가 5백만명에 이르는 북한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이다. 만 7세에서 13세 청소년들이 가입하고 있는 조선소년단도 실제로 있어서는 사로청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로청은 7세에서 30세사이의 북한 청소년들을 거의 다 망라하여 통제하고 지도하고 있고 있는 북한의 유일한 청소년단체로 볼 수 있다.

사로청은 1946년 1월 17일 김일성의 직접적인 지도아래에서 광복이후 북한 각 지역에 조직된 여러 청년단체들을 통합하여 ‘북조선 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었다. 그 후 1951년 1월 서울과 평양에 이원화되어 있던 ‘남북조선 민주청년동맹’을 ‘조선민주

청년동맹'으로 통합결성되었다가,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이후인 1964년 5월 12일 제 5차대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90:45).

북한의 신세대들로 구성된 사로청은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외곽단체의 하나로서 당과 청소년을 연결시켜 주는 고리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로서 북한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집단이다. 사로청은 노동당의 핵심전위조직으로서 노동당규약 제 9장 56항에서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조선노동당의 전투적 후비대'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조직적 위상이 매우 명확하다. 사로청의 목적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북조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된다(백과전서4, 1983).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로청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이변수, 1979; 국토통일원, 1979).

첫째, 사로청은 노동당의 후비대로서 노동당의 대열을 보충해주는 예비당원과 당간부를 양성하는 충원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로청은 청소년들을 당적 사상체제로 무장시켜고 당의 혁명사업에 적극 참여시켜서 당과 운명을 같이 할 예비당원과 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당의 핵심으로 육성한다.

둘째, 사로청은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화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사상과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제

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등 계급적 원수와 적을 미워하며 혁명의 중국적 승리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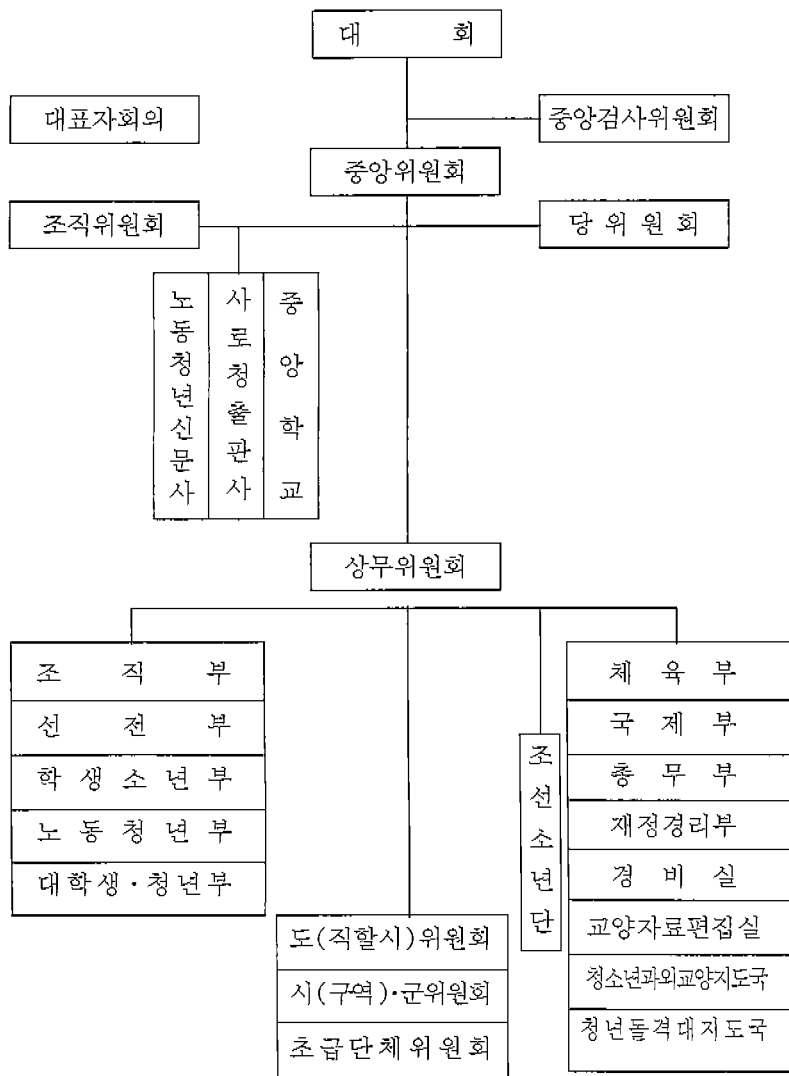
셋째, 사로청은 조속한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생산과 건설현장에 맹원들을 파견하여 노동을 시키는 동원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제계획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노동력동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사로청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를 인민대중에게 침투시켜 관철하는 데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전선동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사로청은 김정일후계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김일성부자체제의 전위대역할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의 영도를 높이 받들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 김정일세습체제보위의 핵심세력으로 육성한다.

이에 따라 사로청은 정치사상교양사업, 사회주의건설에의 돌격대임무, 3대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 조국보위사업과 통일을 위한 투쟁사업, 소년단사업 책임지도사업, 당간부양성사업, 체제우월성 선전활동, 대내외활동을 통한 한국청년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선동과 통일선전사업, 반제국주의·평화·민주주의투쟁을 위한 국제청년학생운동사업 등을 주요 활동과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로동신문’, ‘새날’, ‘소년신문’과 같은 신문과 ‘청년생활’, ‘새세대’, ‘새희망’등의 잡지 등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사로청은 학생소년궁전과 청년극장, 청년회관, 학생소년회관, 청년공원야외극

〈그림 2〉 사로청 조직체계



자 료 : 서동익(1987). 북에서 사는 모습,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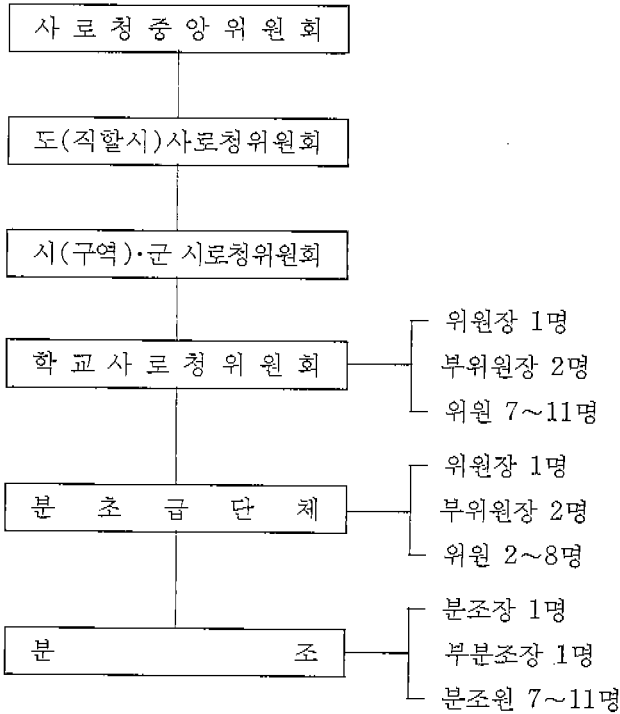
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소년단야영소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사로청의 조직구조

사로청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제 원칙하에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확고한 수직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그림 2 참조). 사로청의 조직은 조선노동당의 위계적 유형을 그대로 본따서 이루어져 있다. 최고수준의 사로청 조직은 의결기관인 대회이나, 실질적인 사업은 중앙위원회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행정기구역할을 담당하는 조직부, 선전선동부, 체육부, 재정경리부, 국제부, 학생소년부, 노동청년부, 대학생청년부, 소년단사업부 등 여러 부서들을 기능별로 묶어 역할분화가 되어 있다(서동익, 1987). 특수사업부서로 노동청년신문사, 사로청출판사, 중앙학교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지방조직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 읍 등 지역단위와 각 직장, 공장, 기업소, 군대, 학교 등 각 생산단위로 조직된 초급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조직과 마찬가지로 도(직할시), 시(구역), 군조직 역시 각각 해당수준의 대표회가 최고기관이나, 동맹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사로청의 기본조직은 최소한 3명이상의 동맹원이 있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국가기관, 교육문화기관, 보건기관, 인민군대와 기타 보조단위들에서 조직되는 초급단체이다. 그러나, 100명이상의 동맹원을 가지는 학교나 공장의 경우에는 초급단체위원회산하에 분초급단체와 분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학교 내 사로청 조직



자 료 : 서동익(1987). 북에서 사는 모습, 75.

3) 사로청의 가입과 탈퇴

사로청규약에 따르면, 사로청가입의 자격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의 북한 청소년으로서 사로청강령과 규약을 승인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투쟁하는 자로서 규정된 멤버(대개

월급의 2-3%)를 내면 부여된다. 사로청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년단 단위위원회와 사로청 맹원 1명(소년단 단위위원회의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동맹원 2명)의 보증서가 첨부된 청원서를 초급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가맹청원서는 초급단체총회에서 토의되어 가맹여부가 결정되나, 가맹의 최종 결정은 초급단체총회의 결정후 1개월 이내에 상급지도기관인 시(구역), 군 동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서 비로서 이루어진다(이 변수, 1979:42). 그리고, 가맹이 확정되어 승인된 자는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함으로써 비로서 맹원이 된다(서동익, 1987:76).

“나는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맹원으로서 항상 조선노동당과 김일성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혁명선배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울 것을 조직과 동지들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사로청에 가입하면, 소년단의 붉은 넥타이를 풀고 소년단뺨지 대신 사로청뺨지를 달고 사로청 맹원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로청맹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만약, 동맹규율을 어기었거나 과오를 저지른 동맹원에 대해서는 과오의 정도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의 책벌을 받게 된다. 당과 혁명에 엄중한 훼손을 준 동맹원은 출맹되기도 한다. 또한, 정확한 이유없이 6개월이상 동맹생활에 참가하지 않거나 맹비를 바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제명된다(이변수, 1979:44).

사로청은 고등중학교와 대학교뿐만아니라 직장과 군대내에도 조직되어 있다. 고등중학교시절 사로청에 처음 가맹하면 졸업후에도 그 자격이 연장되어 30세가 될 때까지 맹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단 만 30세가 넘어도 계속 동맹원으로 생활할 것을 요구하면 1~2년은 더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가맹원이 노동당에 입당할 경우에는 그가 동맹조직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거나 집행기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로청에서 자동적으로 제명된다(이변수, 1979:44;서동익, 1987:74).

4) 사로청회의

사로청은 각급 동맹지도기관을 하부에서 상부까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각급 동맹지도기관은 선거받은 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로청맹원들의 각종 모임인 회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사로청 회의와 모임들은 당의 후비대이며 인전대로서 청소년들을 교양하며 당의 노선과 당면시책이나 김일성과 김정일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문제와 대책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이항구, 1988). 사로청회의로는 사로청대회를 비롯하여 중앙위원회의, 모범초급단체위원장회의, 리사로청위원회, 분조위원회, 중앙 도·시·군·구역 검사위원회, 도·시·군구역 사로청대표회, 초급일군대회, 중앙 도·시·군·구역 열성자회의 등 매우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사로청의 대표적인 회의인 사로청대회와 전원회의를 보다 구

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로청대회는 사로청조직의 최고기관으로 사업결산보고를 승인하고 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거나 수정하고, 동맹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사업들을 결정하고 동맹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를 선출하는 의결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대회는 규약상 최소한 4년에 1회는 열리도록 되어 있으나, 대회의 주기는 매우 불규칙하다. 예를 들면, 사로청 제 6차대회는 1971년 6월 6일에, 제 7차대회는 1981년에 10월에, 그리고 제 8차대회는 1993년 2월에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처럼 불규칙한 주기에도 불구하고, 사로청대회는 다른 어느 사회단체의 대회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 5일간 다양한 경축행사와 함께 성대하게, 간혹 당대회와 같은 규모로 개최된다.

사로청대회는 주로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는 대회로서 사로청을 김일성부자의 세습체제보위의 핵심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대회의 주요 일정을 보면, 개막식은 김일성부자를 비롯한 당·정고위간부, 각급 사로청대표, 시민, 또는 초청된 외국의 청년대표단 등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로청 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김일성에 바치는 ‘충성의 맹세문’전달, 당중앙위원회의 축하문전달, 소년단축하단 입장, 김일성부자에게 꽃다발증정, 사업총화보고를 통한 의정채택순으로 진행된다.

대회기간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로청대표들은 채택된 의제를 토의를 하고 여러 기념행사에 참여한다. 간혹, 대회기간중 하루는 모든 행사를 취소한 채 평양 시내의 각 건설장에 동원되

어 지원노동을 하기도 한다. 폐막식은 김정일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일이 사로청대회앞으로 보내는 서한과 참석대표들에게 보내는 선물의 전달모임, 김정일에 바치는 충성의 맹세문채택 등이 진행된다. 그리고,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대규모 집단체조공연과 폐막식후의 경축야회 등과 같은 경축행사가 김일성부자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을 진동하는 김일성부자에 대한 연호속에서 진행된다.

상징적인 조치로 불규칙하게 개최되는 당대회에 비하여, 전원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씩 개최되는 사로청의 정기회의이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직의 역할을 제고하고, 경제과업및 사상교양사업 등 주요 현안과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실천대책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하고 결의된다. 그러나, 이 대회는 주로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 당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회의의 주제로 채택하거나 토론주제로 삼아 각급 조직별로 무조건 관철을 다짐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므로, 이 회의 역시 전체조직들의 체제일탈현상을 봉쇄하여 김일성부자체제확립을 위한 청소년들의 대중조직적 집회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붉은 청년근위대

1) 붉은 청년근위대의 목적과 조직

붉은 청년근위대는 만 14세이상 고등중학교 남녀학생(고등중학교 고등반 5~6학년)들로 구성된 예비전력인 준군사조직이다. 붉은 청년근위대는 1970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창설되어 현재 대원이 약 100여만명에 이른다. 붉은 청년근위대의 임무는 ‘김일성의 친위대, 당의 전위대, 그리고 군 초급간부 보충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전시정규군을 보충하고 후방지역및 해안을 경계하는 것외에 반혁명요소의 정탐하고 적발하여 북한 지배층을 사수하는 친위대역할, 전체 사회단체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선도적 역할, 세대교체에 따른 핵심적인 역할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북한연구소, 1983;통일원, 1992).

붉은 청년근위대는 노동당 군사부의 지휘통제하에 각 학교별로 정규군과 같이 대대 또는 중대, 소대, 분대 등 군사조직으로 편성되어 있고, 훈련동원시에는 사로청과 정무원 교육위원회에 소속된다(북한연구소, 1983). 편성은 1개 중대는 3~4개 소대로, 1개소대는 4개분대로, 1개 분대는 15명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학교마다 제대군관 또는 인민무력부 해당부문의 현역 군관이 배치되어 붉은 청년근위대의 훈련과 지휘를 전담하고 있다. 지휘체계는 교관이 중대장을, 학생들이 소대장과 분대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붉은 청년근위대원들 훈련기간동안에 정규군과 동일한 복장에 붉은색 5각표 별모표가 있는 레닌모자를 쓰고 군사등급표시는 없지만 붉은 청년근위대라는 휘장을 착용하며 붉은 청년근위대마크인 빨간 표지를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닌다(이항구, 1988:171). 그러나, 군화는 신지 않고 농구화를 신는다. 모든 근위대원은 AK소총으로 무장되어 있고 통신장비도 일부 갖추고 있다. 훈련시 사용되는 중대급 공용화기로서는 기관총, 박격포, 소구경 대포 등이 있다.

붉은 청년근위대의 일반적인 입대절차는 군동원부에서 붉은 청년근위대에 입대할 연령이 된 학생들을 모두 집결해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합격자에 한해서 그들의 문건을 군 동원부장에게 전달한다. 문건을 전달받은 동원부장은 엄밀히 심사해서 다시 선발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서동익, 1987:81). 붉은 청년근위대는 사로청과 고등중학교 고등반학생중 성분이 좋은 자녀들로만 구성된다는 설도 있고, 불량학생을 제외한 해당연령 학생전원으로 구성된다는 설도 있다. 근위대원들의 임무를 고려하여 볼 때, 선발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붉은 청년근위대의 군사교육

붉은 청년근위대는 군에 입대해도 기초적 훈련을 행할 필요가 없이 곧바로 기존병사와의 합동연습이 가능할 정도로 정규군 장

교의 지휘아래 실질적인 군사훈련인 엄격한 군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군사교육내용은 정치학습(항일빨치산 회상기, 혁명역사, 당정책, 김일성노작과 교시, 덕성실기 등)을 비롯하여 전술학(제식훈련, 경계훈련, 행군, 정찰야영훈련, 전술 등), 화기학(화기구조및 조작법, 사격술 예비훈련, 실탄사격 등), 지형학(독도법, 지형지물이용법, 실습훈련 등), 화생방학(방독면착용법, 오염지대 극복방법 등), 체육(장애물극복, 수류탄던지기, 산악타기) 등 군사학습과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다(북한 연구소, 1983). 여학생도 남학생과 동일한 군사훈련을 받으며, 통신, 구급, 간호, 행정보조 임무수행이 주 임무로 되어 있다.

군사교육시간은 연 120시간의 학교내 교육과 연168시간의 입영집체훈련 등 2년간 총 576시간으로 되어 있다. 입영집체훈련은 연 1회 1개월씩 여름 또는 겨울 방학중에 각 시 군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붉은 청년근위대 훈련소에서 실시된다. 근위대 훈련소는 군당군사위원회가 주관하며 각종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교단위로 3기 또는 4기로 나뉘어서 입소하여 훈련을 받는다. 교관은 대대장이하 소대장까지 모두 현역군관이며, 학생들은 훈련기간동안에는 군인들과 똑같이 취급된다. 정규군의 각종 군사훈련을 받을 뿐만아니라 규율을 위반하거나 군관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군법에 따라 처리된다.

훈련소의 교육은 중대 또는 소대단위로 받으며, 사상교양외에 군사교육은 일주일정도는 전술이론, 사격이론, 무기의 구조와 명칭, 작용원리, 내무규정 등 이론 학습을 하고 나머지 3주는 실탄

사격에서 수류탄투척, 무전, 낙하, 포술, 탱크운전, 유격전에 이르기까지 각종 병과훈련을 실제로 받게 된다. 군대에서 1~2년간 배워야 할 내용을 한 달 동안에 배우고 숙련하여야 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받는 훈련보다 훨씬 힘들고 몇 배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4.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 단체활동은 학생소년궁전, 청년회관, 학생소년회관, 문화회관,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도서관, 경기장, 혁명전적지 사적지, 박물관, 전람관, 각종 교육시설 등 이용가능한 사회문화적 시설을 모두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관련 시설중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전용시설로는 사로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를 들 수 있다. 학생소년궁전은 청소년들이 항시 이용하기 편리한 일상 생활권안에 설치되어 문화예술활동중심의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과외활동센터이다. 소년단야영소는 숙박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를 제공하면서 야영활동을 비롯한 자연체험활동중심의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수련시설이다.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궁전은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이어 북한체제를 지켜갈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후비대로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청소년의 특별과외활동시설이다. 학생소년궁전은 사상및 문화교양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교양기관으로서 인민학교 학생과 고등중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산주의사상과 김일성주체사상을 주입하여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학습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학생소년궁전에는 상근직원뿐만아니라 각 연구기관과 대학의 교수, 과학자, 기술자들을 객원교사및 교육보조원으로 위촉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박영규, 1995.10).

학생들은 학교일과중 또는 일과후의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학생소년궁전에서 자기의 적성, 능력, 희망과 요구 등에 따라 각종 소조활동에 참여한다. 소조활동은 크게 과학기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체육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과학기술부문은 물리, 화학, 생물 등 자연과학뿐만아니라 기상관측, 자동차및 트랙터, 컴퓨터 등 응용과학까지, 문화예술부문은 문학, 미술, 무용, 민속, 수예, 서예, 성악및 기악의 음악 등을, 체육부문은 농구, 배구, 축구 등 단체경기와 수영, 육상 등 개인경기 등으로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학생들은 오전과 오후로 등록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토론회, 실험실습과 실기훈련을 하고 하고 제작및 공연활동을 한다. 또한, 궁전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소년선전예술

대에 편성되어 각 기업소, 공장건설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선전 예술공연을 벌이기도 한다.

학생소년궁전은 1963년에 건립된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하여 만경대소년궁전, 개성학생소년궁전, 천리길학생소년궁전,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등이 평양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건립되어 있다. ‘궁전’이라는 용어에는 궁전처럼 크다는 의미외에 김일성이 어린이를 왕으로 주장하여 특별히 배려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황병선, 1993).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만큼 학생소년궁전은 평균 5만여평방부지와 5천평연건평이상의 규모에 도서관, 극장, 연구실, 활동실, 연습실, 방송실, 체육관, 전람실, 운전연습장, 기상관측실, 동물사육장, 유희오락실 등 각종 소조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북한 최대의 학생소년궁전으로는 89년 평양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1989년 5월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에 건립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들 수 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25만 평방미터의 부지면적에 연건축면적 10만 3천 평방미터규모로 세워진 대규모의 궁전으로 내부에 2천석 규모의 극장과 도서관을 비롯하여 2백여개의 소조실과 활동실, 자연박물관과 수족관으로 이루어진 자연관, 관측실과 과학기술 제품전시실을 갖춘 과학관, 30개의 연습실을 갖춘 중앙홀, 1만m 길이로 국제경기가 가능한 수영장, 실내경기장 등이 갖추어져 있다(박영규, 1995.10). 외부에는 자동차 트랙터실, 전자계산실, 녹화강의실, 천체망원경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32비트급 컴퓨터와 녹화설비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만경대소년궁전은 평양 학생소년궁전과 함께 ‘수령의 은총과 사랑속에 북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생활하는 가’를 외부에 자랑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사회문화시설로서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소개되는 장소이다.

2) 소년단야영소

소년단야영소는 청소년들의 혁명성을 고취시키고 소년단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 및 각 도에 설립된 소년단의 수련시설이다. 소년단야영소는 주로 야영, 답사, 탐사활동 등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체험활동 위주의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숙박기능을 갖춘 자연권 청소년 전용시설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 소년단야영소는 김일성부자의 혁명업적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선전하고 그들에 대한 충성심을 제고시키는 북한의 대표적인 교양기관이기도 한다.

북한에는 1957년 제일 먼저 설립된 ‘만경대 소년단야영소(1기에 1천명입소)’를 비롯하여 ‘장자산 소년단야영소’, ‘송도원 소년단야영소’, ‘묘향산 소년단야영소’, ‘충동 소년단야영소’ 등 약 20여개의 소년단야영소가 있다(내외통신, 92.11.24). 소년단야영소는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적지 전적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1957년 최초로 설립된 만경대 소년단야영소는 김일성의 출생지인 만경대및 그의 활동지역일대에, 장자산 소년단야영소는 김정일이 8세이던 6·25당시

평양에서 이 곳으로 피난해서 전선원호사업을 전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소년단야영소에 대한 김일성부자의 관심과 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부자가 선물을 자주 보내거나 직접 부지를 선정하고 시찰하면서 건설방향과 관리운영방안을 지시한 소년단야영소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관식이나 창립 기념보고회 등 소년단야영소의 관련행사는 김일성부자의 치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아래 당·정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리고, 참가자들은 김부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문을 채택한다. 이러한 국가적인 관심과 배려속에 운영되고 있는 소년단야영소는 대부분 한꺼번에 3백명에서 천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야영시설, 집회장, 강의실, 모임실, 체육시설 등 각종 학습과 과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대시설이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다.

가장 시설이 훌륭한 야영소로 1960년 8월에 설립되어 1993년 6월에 더 크고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건설된 강원도 원산 송도원에 위치한 ‘국제 소년단야영소’를 들 수 있다(내외통신, 93.4.1). 명사십리와 함께 원산의 2대명승지 하나로서 널리 알려진 송도원에 건설된 국제 소년단야영소는 푸르른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30여평방미터 부지위에 연건평 4만평방미터에 1천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야영소이다. 이 야영소는 야영각을 비롯하여 국제친선소년회관, 식당, 학습실, 소년단실, 실내체육관, 야외수영장, 보트경기장, 민속놀이장, 야외춤장, 놀이터, 소공원, 기상관측

소, 온실 등을 갖춘 종합적인 야영소로 청소년들의 심리와 기호에 맞게 독특하게 그리고 호화롭게 꾸며져 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과외활동을 위한 국제친선소년회관은 1천 2백석의 관람홀과 무대, 예술소조실, 등산·해양지식보급실, 미술실, 음악실 등 각종 소조실들과 전자오락실, 탁구장, 도서실, 국제우편실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III. 북한청소년단체의 활동내용

북한에는 소년단과 사료청이외의 청소년단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소년단과 사료청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

〈표 1〉 요일별 기본 활동계획표

요 일	활 동 내 용	비 고
월	사회봉사의 날	노력동원, 계몽선전
화	회의의 날(각종 회의참가)	간부회의수시
수	문화의 날(영화감상, 문화작품, 회상기독서)	김일성우상화영화, 노래, 문학작품보급
목	보건위생의 날(환경 미화)	청결, 위생검열, 또는 노력동원대치
금	기술연마의 날(공장견학 실습)	노력동원으로 대치
토	체육의 날(각종 체육활동)	준군사훈련

자 료: 공산권문제연구소(1973), 북한 관계자료.

〈표 2〉 북한 청소년단체의 활동유형과 내용

활동유형	활 동 내 용
정치참여활동	○ 국가행사 참여활동: 집단공연, 충성서약행사 ○ 정치집회 참여활동: 각종 선전선동대회참가
경제지원활동	○ 농촌지원활동: 모내기, 김매기, 풀베기, 추수 등 ○ 경제건설지원활동: 생산공장, 건설공사장 ○ 꼬마계획: 폐품수집활동 ○ 좋은 일하기운동: 충성의 선물운동, 외화벌이운동
지역사회활동	○ 지역사회 환경정리활동: 도로청소, 식수식목작업 등 ○ 소년 선전대활동: 당정책선전대, 예술선전대, 위생선전대 등 ○ 사회질서 유지활동: 학생규찰대활동 ○ 군인 위문활동: 우리 학교—우리 초소운동
문화예술활동	○ 소조활동: 문예소조, 체육전문화소조 ○ 문화예술 모임활동: 영화 감상모임, 독후감 발표모임, 가요 보급모임,
사상교육활동	○ 학습활동: 김일성활동연구회, 회상기학습회, 당정책학습회 등 ○ 생활총화모임 ○ 사회교양기관과 기념물 견학 및 답사활동
군사교련활동	○ 군사훈련 ○ 국방체육활동
야외활동	○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국가정기 답사행군, 백두산 천리길 답사행군,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등 ○ 소년단 야영활동 ○ 소년 과학탐험대활동 ○ 체육 월간행사활동: 해양 체육 월간행사, 겨울철 체육월간행사

에 청소년들은 거의 유사한 단체활동을 하게 한다. 청소년집단의 유형을 비롯하여 성별, 연령, 사회계층, 지역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단체활동은 노동당에서 하달한 규정을 기본으로 작성된 사로청의 일별, 주별, 월별 사업계획서와 주간 행사표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청소년들은 매일 학교에서 교과목교육이 끝나면, 소년단이나 사로청의 주관하에 단체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단체활동은 학교마다 차이가 심하고 잦은 학생들의 노력동원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형식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소년단과 사로청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단체활동은 그 활동의 목표와 성격에 따라 정치참여활동, 경제지원활동, 지역사회활동, 문화예술활동, 사상교육활동, 군사교련활동, 야외활동 등의 7개 활동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³⁾ 각 활동영역별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1. 정치참여활동

정치참여활동이란 국가와 체제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정향을

3) 정규수업시간이후 교과목관련 과외학습역시 소년단과 사로청의 주관하에 실시되고 있으나, 다른 활동들에 비하여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는 청소년단체활동에서는 제외되었다.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적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세계를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정치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정치적 태도와 행동유형을 익히는 정치체험활동을 의미한다. 정치참여활동은 정부와 당의 기능, 정치적 의무와 책임, 충성심, 애국심, 정치제도에 대한 지지와 참여방법 등을 익히는 일종의 정치교육과정으로 청소년들을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 체제와 국가사회에 동조하고 충성을 바치는 즉, 체제와 국가가 필요하는 국민으로 성장발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나라없는 설움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과거 민족의 수난사를 유별나게 부각시키는 북한에서는 국가없이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는 국가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국가에 대한 애착과 지지도를 높이고 국가와 국민간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정치참여활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특히, 충성서약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의식생활, 국민적 영웅을 추모하고 국경일을 경축하는 행사참여, 정치적 회합에의 참가, 지도자나 정부관리와의 만남 등 직접적인 정치경험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정의적으로 국가와 정치체제에 밀착시키려고 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참여활동으로는 국가행사 참여활동과 정치집회 참여활동을 들 수 있다.

1) 국가행사 참여활동

국가행사 참여활동이란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을 비롯하여 김정일생일(2월 16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일(9월 9일), 조선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소년단창립일(6월 6일) 등의 국가기념일과 남북 고위급회담, 범민족 통일음악회, 세계청년학생 축전행사 등 각종 국가행사에 참여하여 조직의 단합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지는 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김일성부자에게 만수축원의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헌화하거나 만세의 환호성을 지르는 등 행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참관할 뿐아니라 마스게임이라는 집단체조, 카드섹션, 축하예술공연 등 집단공연과 ‘충성의 선서모임’이나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와 같은 충성서약행사를 통하여 행사자체에 직접 참여한다.

집단체조 집단체조는 국가의 주요 행사때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목으로서 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무장, 결속시키고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위력을 국내외에 과시하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 집단체조는 국가체육위원회 산하의 집단체조창작단이라는 전문조직에 의하여 관리, 통제되고 있다(서울신문, 92. 8. 3). 집단체조는 학교체육의 중점과목으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일이나 체육의 날(매월 둘째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특정 행사때 공연되는 대부분 집단체조는

몇 달씩, 보통 6~7시간씩 훈련을 실시한다. 행사용 집단체조는 약 5천명에서 10만명정도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충성의 서약행사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는 1960년 4월 15일 김일성 48회 생일행사에서 최초로 발기된 후에 국가 주요행사를 앞두고 진행되는 김일성부자에 대한 주민들의 대표적인 충성서약행사이다. 이 행사는 먼저 북한 전역에서 지역단위별로 김일성부자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주민들의 편지를 군중집회에서 채택한 다음 이 편지를 휴대한 대열이 각 지역단위별로 미리 계획된 경로를 따라 이어 달리기를 계속하다가 행사 당일 평양에 도착시켜 행사에 참석한 김일성부자에게 전달하여 북한 전 주민들이 김일성부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다(북한연구소, 93. 8). 이어 달리기대열에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영웅, 공로가 있는 전쟁노병, 군인, 노력혁신자, 예체능인 등 각계 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충성서약행사의 일환으로 소년단 대회개최를 앞두고 북한 각지에서 진행되는 소년단원들의 ‘붉은 벡타이 전달 이어달리기’, 사료청 대회를 앞두고 김일성부자에게 보내는 ‘충성의 맹세문 전달 이어달리기’, 김일성부자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편지올리기운동, 김일성부자의 생일을 비롯하여 신년과 명절 때마다 김일성부자의 사랑과 배려에 충성을 다지는 충성의 맹세 모임 등이 있다.

2) 정치집회 참여활동

정치집회활동은 정부와 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정치모임에 참가하여 관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집회는 선전선동집회가 대부분이며, 궐기모임, 궐기집회, 군중집회와 회의, 대회 등 다양한 형태로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집회의 형식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군중의 집합, 당·정고위층의 등장, 특정인물의 보고, 미리 지명된 자의 토론, 결의문채택, 가두시위행진, 해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이 항구, 1988). 정치집회는 각급 기관 또는 학교별로 진행되기도 하고 단체별로 진행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한 종류의 집회에 어떤 형태로든 한 두 번은 참가하여야 하고 심할 경우에는 지역, 단체 등의 소속과 신분에 따라 3~4회씩 참가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주로 참가하고 있는 정치집회를 내용별로 세분하면 대체로 충성선동집회, 노역선동집회, 대남선동집회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내외통신, 1991. 8. 2)⁴⁾

충성선동집회 충성선동집회는 김일성부자와 북한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적 충성을 고취하여 북한체제, 즉 김일성부자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상선동의 성격을 지닌 집회이다.

4) 사로청의 창립기념집회, 전원회의, 모범초급단체위원장회의 등 청소년 단체의 각종 회의나 집회도 선전선동집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유형의 집회는 주로 김일성부자의 우상화선전을 비롯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선전, 북한 사회주의체제찬양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국가기념일 축하행사를 비롯하여 김일성부자의 치적 또는 행적과 관련된 기념집회가 이에 속한다. 대표적인 집회로 김일성 신년사 관철을 위한 선동대회, 보천보전투승리 기념 보고회, 김정일문헌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쫓기모임, 김일성에 대한 김정일의 충실성과 효성을 따라 배우는 선동사업강화를 위한 선동원회의, 사로청원들의 사상무장강화와 발표력향상을 위한 선동연설경연대회 등을 들 수 있다.

노역선동집회 노역선동집회는 가장 빈번하게 개최되는 선동집회로 자력갱생에 입각하여 주민들을 최대한 경제건설장으로 동원하여 경제건설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동원 극대화 선동집회이다. 노역선동집회는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건설부진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과업의 완수를 위한 주민들의 혁명투쟁및 경쟁적인 노력투쟁을 촉구하는 총돌격전의 전개가 중심이 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역선동집회에서는 청소년의 노력동원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그 성과를 과시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역할을 강조하여 청소년들이 노력혁신을 위하여 앞장 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노역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역선동집회로는 김일성 신년사 과업관철을 위한 선봉대, 돌격대가 되기 위한 청년학생결의모임, 속도전 청년돌격대 열성자회의, 속도전 청년돌격대조직 기념보고회, 전국 청년열성자회의,

청년돌격대원 꺾기모임, 전국 사로맹일군 청년전위 돌격대원들의 맹세모임, 새기술 소년봉화상 쟁취대회, 청년과학 기술선봉대 쟁취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대남선동집회 대남선동집회는 대남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통일정책을 홍보하고 아울러 한국의 실상을 왜곡선전함으로써 반한, 반미의식과 긴장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동집회이다. 대남선동집회는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뿐만아니라 남한주민과 남한학생들에 대한 반정부 투쟁선동의 계기로도 활용되고 있다. 대남선동집회는 남북관계 또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빈도와 강도가 달라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틴스피리트훈련이 있는 1~2월과 6.25를 전후한 6~7월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전국학생 대미성토대회, 전국학생소년들의 복수결의모임, 한일 국교 정상화회담 반대 학생데모 사건인 6.3투쟁기념 청년학생보고회, 4.19기념보고회, 임수경 밀입북시 남북학생 공동선언문, 범청학련 공동 해외연락본부 결성관련 청년학생집회, 남북 해외동포 청년학생집회 등이 이에 속한다.

2. 경제지원활동

경제지원활동이란 국가경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

년들이 노동을 통하여 직접 경제건설현장에 참여하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이용가능한 인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생산적인 활동에 투입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경제건설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부과하여 학생 사회의무 노동제를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의 노력동원을 극대화하고 있다.

학생 사회의무 노동제는 1959년 내각결정 18호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생산노동과 건설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일정한 시간의 노동을 하도록 법제화된 제도를 말한다. 인민학교학생(3~4학년에 한함)은 연간 2~4주, 고등중학교 학생은 6~8주, 대학생은 12~14주간을 노동하도록 각급 학교별로 연간노동일수를 규정하고 있다(국토통일원, 1989:98). 이러한 의무노동기간외에도, 특별한 동원지시가 내려오면 학생들은 방과후나, 휴일, 방학 등 언제라도 수시로 집단동원된다.

학생노력동원은 당중앙위원회의 계획에 의하여 각 지역의 소년단과 사로청조직을 통하여 학생들이 중앙통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에 의하여 하달된 목표량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달성하여야 할 책임정량이 학생개인별, 단체별, 학급별, 학교별로 엄밀히 부과되어 있다. 학생들은 성인과 동일한 작업량이 할당받아 노동을 하며, 노동의 댓가로 학생개개인에게 돌아오는 어떤 혜택도 없는 일체 무상노동이다. 그러나, 할당된 책임량의 완수여부에 대한 상벌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노력동원에는 1개월이상의 고정노력동원과 2~3일정도의

임시노력동원이 있다(북한연구소, 1983:1216). 고정노력동원기간에는 학생들은 학교수업은 거의 하지 않고 학교수업의 연장으로서 농장, 공장,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경제성장의 부진 타개를 위한 견인차로서 야간의 건설작업과 미숙련작업, 모심기, 수확 등의 농사와 같은 생산부진부문과 힘든 일에 주로 집중동원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동원활동은 농촌지원활동, 경제건설지원활동, 꼬마계획, 좋은 일하기 운동 등의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농촌지원활동

농촌지원활동은 봄(4월중순에서 7월중순)과 가을(9월초에서 10월중순)의 농번기에 약 3~4개월동안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돕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농촌지원작업은 동원된 시기나 농장작업반의 내용에 따라 퇴비만들기, 거름주기, 모내기, 옥수수영양단지심기, 모내기, 김매기, 풀베기, 옥수수깍질까기, 퇴비만들기, 관수작업, 추수 등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인민학교 학생은 오전 수업후 주변농장에 나가서 물을 준다든가 벌레를 잡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의 가벼운 일을 합니다.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배낭을 지고 먼 타지역의 농촌으로 나가 농촌지원활동을 한다. 특히, 바쁜 모내기절이나 추수때가 되면 학생들은 전적 농촌에 나가 합숙생활을 한다.

농촌지원활동시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일반 농민과 별반 차이

가 없다. 새벽 5, 6시부터 작업장에 나가 저녁 7시까지 약 10여 시간을 계속 일을 해야 한다. 하루의 힘든 작업이 끝나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학습, 우등불모임, 강연 등 조직별 모임과 예술강연, 영화학습 등 집체모임에 참가하여야 한다(서동익, 1988). 밤 11시정도가 되어야 취침을 할 수 있게 된다. 휴식기간에조차 자유행동이 허용되지 않고 규율을 지켜야 한다.

2) 경제건설지원활동

청소년들은 필요에 따라 경제건설부문에다 수시로 동원된다. 인민학교학생들은 주로 조경사업(유실수가꾸기)와 도로미화작업에 많이 동원되지만, 고등중학교 이상 학생들은 건설현장에 직접 동원된다. 생산이 지연된 공장, 기업소에 파견되거나 도로및 철도 보수공사, 도시및 공공건물(아파트나 학교건물)건설장, 발전소건설, 기계제작, 탄광건설장, 유원지 조성작업 등 경제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동원된다. 건설현장에서 학생들은 블록, 자갈, 모래운반작업을 비롯하여 철길로반납기, 지대정리, 굴착작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이 자랑하는 어린이궁전, 박물관, 안골채육촌, 아파트 단지(평양 5만세대 아파트단지), 지하철건설은 학생들의 노력동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동원되는 노동작업들은 주로 현대적 장비보다는 사람의 손에 의존하여 빠른 속도로 완성하는 것으로서 날림 부실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일을 해야 하

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모한 작업동원은 서투른 학생들은 건설 현장에서의 위험부담율이 무엇보다 높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 나고 있다. 공사중에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져 사망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3) 꼬마계획

꼬마계획이란 북한의 경제계획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어린이대상의 노력운동을 의미한다. 학교마다 파고철, 파유리, 파종이 등 폐품을 수집하도록 하고, 학교별, 그리고 각 학생 개인별로 일정한 할당량이 주어진다. 꼬마계획 할당량은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파고철 20kg, 파유리 9kg, 파종이 5kg, 송이버섯 10kg, 찌리 상자 2개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가운데 파고철수집이 특히 강조된다(서동익, 1987).

방과후, 하루에 1~2시간씩 친구들과 집단으로 길거리나 공장 부근에 몰려 다니면서 꼬마계획을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물건들을 수집상점에 보내어 일정한 값에 팔고 그 수매종과 돈을 학교에다 바쳐야 한다(송철복, 1990). 꼬마계획은 방학이나 휴일에도 계속 수행된다.

4) 좋은 일하기 운동

좋은 일하기 운동은 1950년부터 시작하여 1970년이후 더욱 적

국화된 운동으로서 학생청소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건설자로 키우는 운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좋은 일하기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충성의 선물운동과 외화벌이운동을 들 수 있다. 충성의 선물운동은 김일성부자의 생일을 비롯하여 군대창건일 등 국가기념일에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충성의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헌납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각종 노력동원에 참가하여 모은 성금으로 열차및 무궤도 전차, 기중기, 자동차, 비행기, 탱크, 군함, 여객선, 트랙터 등을 김일성부자와 국가에 헌납한다. 이들이 헌납한 선물들은 ‘정일봉소년호’, ‘소년호 트랙터’, ‘청년전위 92호’ 등으로 명명되어 기념되거나, 이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당중앙위원회명의로 감사문을 받기도 한다.

외화벌이운동이란 말그대로 수출하여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운동으로 토끼기르기, 산열매따기, 산나물과 약초캐기, 해바라기, 피마자 등 씨앗심기, 송진짜기, 특용작물 또는 화초재배 등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여러 외화벌이 품목중에 토끼기르기는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으며, 한 학생이 3~5씩 의무적으로 기르도록 되어 있다.

3.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활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연대의식확립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생활현장에서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실태및 제 문제들을 논의하고 지역사회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게 하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이다. 특히, 지역사회활동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발전은 조화와 협력, 상호의존, 상호보완성을 필요로 함을 인식시켜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확대를 예방하고 소속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지역사회성원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

집단주의체제인 북한에서는 개인은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며, 개개인의 생활가치는 개인의 안녕이나 안일이 아닌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에 의하여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봉사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활동으로는 지역사회환경정리활동, 소년 선전대활동, 사회질서 유지활동, 군인위문활동 등을 들 수 있다.

1) 지역사회 환경정리활동

지역사회 환경정리활동은 향토애호정신 함양이라는 목적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이나 지역사회를 깨끗한 상태로 관리보전하는 활동을 말한다. 환경정리활동은 도로청소,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꽃길가꾸기, 식수식목작업 등 마을주변 환경미화작업과 건물외장재 도색작업, 도로보수및 포장, 강하천및 배수로 정비사업, 부락공동 축사작업, 공원과 유원지조성 등 지역사회 공동작업에 참여 하는 지역사회사업 지원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 마을 우리 거리 꾸리기 운동’은 대표적인 지역사회 환경정리활동중 하나이다.

청소년대상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는 환경정리활동으로는 도로청소와 식수식목작업을 들 수 있다. 도로청소는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고급 당간부들이 내왕하는 구역청소가 중심이 되며, 학생들은 배치된 구역을 일차 비로 쓸어 낸 후, 물로 씻고 걸레질로 마무리를 하는 등 깨끗이 청소를 한다. 식수식목작업은 사로청, 소년단조직이 지역사회 국토관리기관들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녹화활동이다. 소년단림, 사로청림 등이 구성되어 있고 매년 봄(3월~4월)과 가을(9월~10월) 두차례 식수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소년선전대활동

소년선전대활동은 국가시책이나 당정책,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사람들에겐 설명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홍보 및 계몽활동을 의미한다. 소년선전대로는 당정책선전대, 예술선전대, 과학선전대, 학술선전대, 위생선전대 등 각종 분야에 조직되어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선전대는 예술소조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제선동대이다.

예술선전대는 간편한 대중악기를 가지고 협동농장, 기업소, 생산공장,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노래, 사랑송, 재담, 기악연주 등의 공연과 정책해설을 하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고취와 생산성향상을 북돋우어 경제과업수행을 독려한다. 예술선전대는 노력배가선동뿐만아니라 김일성부자 찬양공연을 통하여 김일성부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당 사상교양사업도 함께 수행한다.

3) 사회질서 유지활동

사회질서 유지활동은 소년단이나 사로청위원회 간부들로 구성된 학생규찰대에 의한 거리질서 바로잡기활동을 말한다. 학생규찰대는 학생들의 등교, 머리·복장상태, 학교규칙 준수여부 등의 검열을 통하여 학교안의 질서유지나 학생들의 품위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뿐만아니라 학교밖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학생과

어른들까지 검열단속한다(동아일보사, 1995). 이들은 주로 2인 1조씩 10개조로 나누어 학교관할구역에 나가 사회의 기초질서를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지역이나 나라의 특별한 행사 때에는 규찰대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

학생규찰대들은 침을 빨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은 물론 김일성뺨지를 달지 않았거나 남루한 옷을 입든지 머리가 긴 복장 상태가 불량한 사람, 품행이 불량하거나 태도가 수상한 사람 등을 적발하여 지도통제한다. 학생규찰대는 적발된 사람들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 그 명단을 학교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학생들은 소속학교에 의하여 바로 처벌을 받으나, 어른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각 해당조직으로 통보 하여 적발된 사람들이 비판과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4) 군인위문활동

군인위문활동은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민간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유대를 강화하며 학생들에게 군원호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활동이다. 군인위문활동은 군민일치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 초소—우리 학교, 우리 학교—우리 초소 운동’이라는 명목하에 1991년 김정일이 군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부터 지속적이고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내외통신, 92. 7. 7; 조선일보, 92. 10. 30).

군인위문활동은 군인에게 위문편지쓰기를 비롯하여 세면도구,

필기도구, 수예품, 생활용품 등 위문품보내기, 예술공연, 오락회 등 위문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학생들의 위문활동에 보답하여 각급 군부대에서도 여가를 이용하여 수집하거나 제작한 지방특산물과 학용품을 해당학교에 전달하기도 한다. 군 위문사업의 성과가 뛰어난 학교에는 김정일명의로의 감사문을 보내면서 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있다.

4. 사상교육활동

사상교육이란 공산주의이념아래 공산주의의 기본가치를 내면화시키고 공산주의적 생활태도를 형성하여 공산주의 사회와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교육을 의미한다. 사상교육의 주목적은 혁명과업수행에 필요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형성하여 공산주의체제를 확고히 하자는 데 있다. 특히, 과거의 지주, 자본가,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에 대해서 실제 경험한 바가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사상교육은 청소년들의 연령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속에 스며들어 생활화, 실천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실시되고 있다. 사상교육은 모든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시되어 정규수업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참여활동, 경제지원활동, 군사훈련, 모임과 회의, 행사 활동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상교육일환으

로 별도로 실시되고 있는 단체활동으로는 학습활동, 생활총화모임, 사회교양기관과 기념물에 대한 현장견학 및 답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1) 학습활동

학습활동은 김일성부자의 저작을 연구하고 김일성부자의 사상성, 혁명성에 대하여 토론하는 활동을 말한다. 학습활동은 주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일편단심과 충성을 독려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학습활동에서는 주로 김일성저작집과 김일성선집, 김정일선집과 같은 노작을 비롯하여 김일성부자의 교시, 항일발치산대원들의 회상기, 어버이수령님의 어린 시절이야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덕성실기 등 김일성부자를 찬양하는 책자가 많이 권장되고 읽히고 있다.

김일성노작이나 교시와 같은 학습자료는 모든 학생들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완전히 암송하여 통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혁명의 교과서로 선전하고 있는 김일성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와 김일성을 따라 항일투쟁을 하였다는 북한 정권 주요인물들의 이른바 회상을 통하여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인 ‘항일발치산 대원들의 회상기’와 같은 책들은 청소년들뿐만아니라 전 주민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독서로써 그 내용을 무조건 암송하도록 되어 있다.

학습활동은 강습회, 강연회, 자습회, 독보회, 발표회, 조회, 말

쓰학습, 도록해설, 원문독보모임, 문답식 학습, 집체담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진다. 주로 많이 실시되고 있는 학습활동으로는 김일성활동연구회, 김일성주의학습회, 당역사 연구반 학습회, 구호학습, 김일성의 교시와 역사학습회, 회상기학습회, 김일성장 의록 학습, 김정일덕성학습회, 신문독보회, 시사해설회, 그리고 수시로 제기되는 당정책학습회 등 다양한 학습활동모임들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김일성연구반 학습회는 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김일성혁명역사연구실에서 김일성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활동을 연구하는 학습모임이다. 이 학습회는 학생의 출신성분과 정치활동의 정도 등 선발기준이 까다로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치사상학습활동의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선전선동원의 지도하에 김일성부자문헌에 대한 해설담화모임이 함께 진행되고, 참가자들끼리 시나 소설의 한 대목을 묻고 대답하는 일종의 퀴즈대회인 문답식 학습 경연대회, 김일성부자의 찬양과 공산주의체제의 선전을 위한 문학작품을 현상공모하는 문학상공모, 혁명전적지·사적지 답사행군과정에 책을 읽게 하는 독서행군 등 다양한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다.

2) 생활총화모임

회의나 모임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교양을 위한 사상교육

의 한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누구나 평균 1~2시간의 회의와 모임을 갖을 정도로 다양한 명목하에 여러 가지 회의와 모임이 열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상모임으로 생활총화모임을 들 수 있다.

생활총화모임이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생활과 행동을 반성하고 비판하며 단체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토론하는 자치모임이다. 생활총화는 일일총화, 주간총화, 월간총화, 분기총화, 연간총화 등이 있으며, 내용과 형식은 거의 같다. 생활총화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시되는 총화는 매주 학습이 진행되는 토요일에 실시되는 주간생활총화이다.

주간생활총화는 각 학급의 교실에서 분단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앞에서 지난 1주일동안 자신이 행한 잘못된 언행을 스스로 밝히고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비판한다. 자신의 언행을 스스로 비판하는 자아비판후에는 남의 잘못된 언행을 서로 비판하는 상호비판이 따른다. 상호비판에서는 문제가 특히 많았던 학생들을 단상에 세워 집중적으로 비판하게 된다.

생활총화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판은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에 의거하여야 하고 김부자에 대한 충성으로 일관되는 내용을 토론하여야 한다. 서두에는 항상 김부자의 교시를 말하고 이를 인용하여 자신의 학습이나 조직생활에서의 잘못을 비판하여야 한다(중앙일보, 1995. 2. 7). 비판후에는 비판문과 반성문을 반드시 써서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은 생활총화시간에 드러난 학

생 개개인의 비판기록을 문서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첨가하여 학기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부조직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견학및 답사활동

청소년들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사업으로 각종의 정치, 역사, 문화시설에 대한 현장견학과 현지답사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중요시되고 있는 사상교육장으로는 만경대의 김일성생가,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혁명박물관, 조국전쟁기념관, 군중문화관, 봉화리와 강반석의 생가, 어머니전람관, 민주선전실및 구락부, 도서관, 인민대학습당, 주체사상탑, 당창건사적비, 인민군열사탑,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 김일성동상, 김일성광장 등 사회교양기관과 기념물 등이 있다.

만경대의 김일성생가는 김일성의 유년시기부터 김일성의 영웅적 생활과 업적을 나타내는 각종 유품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김일성우상화 교육장으로 성역화되어 있다. 유치원생에서 청소년, 군인, 일반인들이 참배형식으로 만경대를 의무적으로 참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루 평균 5천명정도가 만경대생가에 집단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정에 큰 전과를 올렸거나 중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혁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곳과 김일성의 항일빨치산시대때 싸운 곳을 성역화

하여 놓은 장소를 말한다(북한연구소, 1983). 혁명전적지·사적지에는 김일성의 혁명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듯 이해할 수 있도록 동상, 혁명사적기념비,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마련되어 있다. 장기간의 합숙을 통하여 김일성의 혁명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교육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혁명전적지·사적지로 보천보 혁명전적지, 삼지연 혁명전적지, 왕재산 혁명사적지, 동흥산 혁명사적지 등이 있으며, 북한뿐만 아니라 장백산맥일대와 만주에까지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혁명전적지와 사적지는 김일성뿐만아니라 김정일, 김정숙, 김형직, 강반석, 김형권 등 김일성일가의 우상화성역지로 전국에 조성되어 있다.

5.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안목배양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영화, 문학, 체육 등 분야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발표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화예술활동을 관람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문화예술을 대중을 교양개조하고 혁명과 건설에 복무하게 하는 사상교양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치적 선동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대중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술의 대중화, 생활화정책에 따라 근로대중, 특히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사업에 역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나 창조능력증진이라는 교육적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성, 혁명성과 결부시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문화예술활동은 청소년들의 혁명적 지향과 열의, 그리고 충성심을 고취시켜 공산주의적 인간형성을 본질적인 임무로 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사상 교양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예술활동은 소조활동과 각종 문화예술모임을 들 수 있다.

1) 소조활동

소조활동이란 각 학생들이 자기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 들어가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서클활동을 의미한다. 소조에는 음악소조, 문학소조, 연극소조, 무용소조, 미술소조 등 문예소조와 체육소조가 있다. 소조활동은 사로청의 문화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별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생산직장별, 부대별, 학교별, 기관별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조활동은 학교에서만만이 아니라 사회교양기관인 학생소년궁전에 서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도하고 있다.

문예소조활동 문예소조는 소조원 개개인이 문화예술의 향유자이며 적극적인 창조자로서 문화예술이론을 연구하고 그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여 자신들의 문화예술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을 창작하여 그 작품을 대중들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노동은, 송방송, 1990). 1개소조에는 보통 5~6명에서 20~60명씩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문예소조활동은 휴식시간이나 방과후 또는 일과후 과외활동시간에 실시되고 있다.

문예소조는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보급활동을 비롯하여 창작발표회, 예술소조축전, 예술축전, 소조경연대회, 각종 예술경연대회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축전은 각 지역별 소조활동을 중앙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예술경연대회이다. 축전에는 군중 예술작품 현상모집, 문예물 창작경연대회, 노동자 예술축전, 전지역 청년예술축전, 전국 학생소년 예술축전 등이 있다. 소조원들은 음악, 무용, 화술, 소품 등 자신들의 창작품을 가지고 축전에 참가하여 자신들이 갖고 닦아온 재능과 실력을 발휘한다.

전문화 체육소조활동 전문화 체육소조활동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소조활동으로 신체단련을 통한 건강유지를 위하여 한 가지 이상씩 체육기술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체육특기자를 조기발굴육성하여 나라의 체육기술발전을 가져 오게 한다는 목적하에 실시되고 있다. 체육소조는 1974년 김정일의 학교체육의 종목별

전문화방침제기에 따라 각급학교에 조직된 의무적인 체육서클이다. 각급학교는 축구, 탁구, 배구, 체조 등 17개 종목 가운데 실정에 맞는 한 가지 종목을 선정하여 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누구나 소질과 취미에 맞는 소조에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한가지 이상의 체육기술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소조활동은 체육의 날인 매주 토요일과 매일 학교수업이 끝난 뒤 1~2시간씩 실시하는 과외체육시간에 주로 전개된다. 체육소조들은 해마다 2년씩 열리는 ‘4·18우승컵’을 위한 전국 청소년학생 종목별 전문화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시합을 한다. 1990년 기준으로 북한에 총 2만 3천 1백 63개의 전문화 체육소조가 있으며, 여기에 소속된 학생은 23만 3천명에 이른다(내외통신, 90.5.8). 체육소조는 지난 20여년간 전국적으로 60여명의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을 배출한 선수양성의 산실로 알려져 있다(내외통신, 94.7.1).

2) 문화예술 모임활동

문화예술이 청소년들의 사상무장을 강화하는 위력한 무기로 규정되어 문화예술의 창작부터 보급까지 국가에서 관리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작품들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이 반드시 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작품을 선정하여 조직을 통하여 의무적, 집단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사실주의의 창작원칙에 따라 사상교양차원에서만의 작품들만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모임을 통하여 접하는 작품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과 김일성부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혁명적, 사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보급모임으로 독후감 발표모임, 영화감상모임, 가요보급모임, 시낭송모임 등이 있다.

독후감 발표모임 독후감 발표모임은 공산주의적 사고능력과 표현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책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고 이를 발표하는 독서모임이다. 청소년들은 이 모임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된 책들을 의무적으로 읽은 후 감상문 또는 보고문을 제출하고 발표한다(내외통신, 1991.10.11). 독후감 발표모임은 김일성, 김정일, 당정책, 혁명전통 등에 관한 혁명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후감 발표모임은 집단적인 책읽기를 권장하는 ‘하루에 두 시간 이상, 1년에 1만쪽 책읽기’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독후감 발표모임은 사로청주관아래 1주일단위로 집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읽고 발표해야 할 분량은 책의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50장내외이고, 감상문은 인민학교 학생은 주 1회, 고등중학교 학생은 주 2회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통일한국, 86. 9). 독후감 발표모임은 김일성부자 또는 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시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낭

송하는 시낭송모임과 함께 실시되고 있다.

영화감상모임 영화는 직관예술로서 사람들에게 대한 호소력과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연간 25편정도 의무적으로 관람할 정도로 영화감상이 중요시되고 있다(통일한국, 88.4). 영화감상은 매주 수요일 ‘문화의 날’이나 토요일 일과후에 월 1~2회씩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북한정권 수립일 등 각종 기념일이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등 정치행사때마다 설정되는 ‘영화상영순간’에 청소년들이 영화를 관람하도록 되어 있다.

영화관람후에는 반드시 영화감상모임이라는 토론회형식의 집회를 갖는다. 영화보급원이나 조직간부가 청소년들의 영화에 대한 감상을 발표하게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철저히 알고 있는 지를 점검한다. 이러한 영화감상모임외에 영화에서 배운 내용을 현실속에서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자는 ‘영화실효투쟁모임’과 ‘영화주인공따라배우기 운동’ 등의 군중집회, ‘주제가 부르기 경연대회’, ‘명대사외우기’ 등의 부수행사가 있다(노재승, 1989).

가요보급모임 가요보급모임은 김일성송가, 김정일송가, 그리고 북한식 공산주의체제를 찬양하는 노래 등 새로 나온 혁명적인 노래를 배워 주는 모임으로 가장 중요한 혁명가요보급의 수단으로 손꼽히고 있다. 가요보급모임은 사로청의 주관하에 각급 학교

에서는 학급단위로, 협동농장과 공장 등에서는 작업소조별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가요보급모임은 일과시간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책임자, 주로 각지에 파견된 가요보급해설원의 지도아래 진행된다. 가요보급해설원들은 보급하고자 하는 가요의 내용과 곡조 등을 해설하여 노래를 외워부르고 가사내용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한 후 이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내외통신, 1992.7.16). 가요보급모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상가요와 우상시를 중심으로 한 노래경연대회가 사로청 주관하에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6. 군사교련활동

군사교련활동은 군사상의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서 특정한 군사기능및 과업을 수행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사관련교육과 훈련을 말한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보위한다는 국방의 자위원칙아래 전인민을 군대화하는 ‘전인민의 무장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관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국가를 튼튼히 지키는 조국방위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전투에 앞장 설 수 있는 건강하고 동원된 자세와 각오를 일상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군사교련을 실시하고 있다.

군사교련활동은 평상시 후방지역의 방어와 전시 정규군보충을 위한 군사력 증강이외에 김일성 유일사상에 입각한 혁명정신을 함양하여 당과 김일성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근위대, 결사대의 양성을 위한 사상교육의 목적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사로청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교련활동으로 군사훈련과 국방체육활동을 들 수 있다.

1) 군사훈련

1948년부터 모든 고등중학교 고등반이상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이래 학생군사교육은 의무화되어 현재까지 남녀구별없이 군사이론과 훈련이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북한연구소, 1983). 학생군사교육의 지휘와 통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가 직접 관장하고, 실제 교육은 정무원의 교육위원회와 인민무력부가 청소년단체를 통하여 실시한다. 학생군사교육은 고등중학교 고등반이상의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 5~6학년 학생과 대학생들은 정규무력군인 인민군외에 예비전력인 준군사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붉은 청년근위대’와 ‘대학교도대’에 조직되어 실질적인 군사훈련인 엄격한 군대교육을 체계적으로 받는다. 그러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 학생들은 소년단주관하에 예비적인 군사훈련을 받는다.

인민학교학생들은 제식훈련과 포복, 응급처치, 숙영지에서 밥짓는 법 등을 배운다. 1~2학년생에게는 목총과 모의총을 휴대시켜 대열을 정돈하는 제식동작과 군사놀이를 시키는 정도로 그친다. 그러나, 3~4학년생부터는 접총 동작과 조준·발사방법 등의 ‘사격훈련’을, 비록하여 분대규모의 각종 제식동작의 ‘대열훈련’, 산개된 분대 대형에서 총돌고 달리기, 고지탈환, 미군병사 허수아비 찌르기 등의 ‘전술훈련’을 실시한다(북한연구소, 1983). 고등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사격, 대열, 전술훈련 등의 각 과목별로 군사훈련을 받는다. 사격훈련에서는 소총의 분해결합법, 조준 연습, 모의사격훈련을, 대열훈련에서는 개별 제식동작과 분대·소대 대형에서의 제식동작을, 전술훈련에서는 분대·소대의 대형전개및 고지점령을 배운다.

소년단원들중 가장 출신성분이 좋고 유능한 간부가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 소년들을 선발하여 ‘소년근위대’를 조직하여 특별군사훈련을 시킨다. 또한, 소년단원중 모범소년단원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소년단 야영훈련소에 입소하여 15일동안에 준군사집체훈련인 ‘소년유격대’훈련을 받는다. 군사훈련내용은 정치학습을 비롯하여 체력단련, 독도법, 구급법, 제식훈련, 그리고 등산, 해양체육, 수영, 뱃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항구, 1988:222; 양태진, 이서행, 1983:207).

2) 국방체육활동

국방체육이란 조국보위를 위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단련시키고 군사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기능을 체득하도록 실시하는 일종의 준군사훈련이다. 국방체육은 국방력강화 이외에 체육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여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이바지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국토통일원, 1988; 북한연구소, 1983). 그러므로, 국방체육은 사상교양의 강화와 군사력증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창안된 독특한 체육활동으로 볼 수 있다.

국방체육은 사로청과 지역 체육구락부의 주관하에 학교, 공장, 기업소, 농장 등 생활환경및 지역단위에 맞게 실시되고 있다(북한연구소, 1983). 국방체육종목은 군사활동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철봉, 달리기, 높이뛰기, 넓이뛰기, 집단체조, 배구, 농구 등 체력단련을 위한 기초종목을 비롯하여 제식훈련, 장애물종목(외나무다리건너기, 벽오르기, 밧줄로 건너뛰기, 철조망통과 등), 수류탄던지기, 허수아비찌르기, 강행군(오천보달리기, 만경대달리기, 산악행군, 야지구보, 보행훈련) 등 초보적인 군사훈련종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년 가을 학교마다 개최되는 운동회에서도 ‘미국놈 까부시기’, ‘탱크부시기’, ‘철조망밑으로 엎드려 통과하기’, ‘화점(토치카)까부시기’, ‘포탄상자나르기’ 등 호전적인 국방체육종목이 채택되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매년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에 군단위 별로 개최되는 학교대항 국방체육 경기대회를 통하여 각 학교의 국방체육교육의 실시결과를 평가한다. 대회기간동안에는 학생들 전원이 청년근위대복에 15kg의 배낭을 휴대하며, 허수아비찌르기와 강행군전수는 AK 자동소총형의 목총을 추가로 휴대한다 (이항구, 1988).

7. 야외활동

야외활동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나 직접 국토를 중단하거나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문화유적지, 산업시설 등을 탐방하여 국토와 국가, 체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함양하고자 하는 체험중심활동이다. 실제, 야외활동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양성한다는 목적아래 청소년들에게 사상성과 혁명성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사명감과 집단주의정신을 고취시켜서 김일성 부자체제와 사로청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로 실시되고 있다.

야외활동은 각급 사로청조직 주도하에 집단야영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야영활동기간동안에는 각종 탐사활동이외에 사상교양학습을 비롯하여 학과지식학습, 문화예술활동, 견학활동, 그리고 군사훈련까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야외활동으로는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소년단야영활동, 소년과학대탐험

활동, 체육주간행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야외활동은 주로 방학기간이나 휴가, 행사 등 특정한 기간동안 행사의 형태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북한의 실정하에서 야외활동은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보람찬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야외활동의 참여기회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야외활동은 공부나 조직생활을 열심히하여 모범소년단원이나 사로청맹원으로 뽑힌 청소년들에 대한 표상방법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 참여기회는 소수의 청소년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1)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은 북한 청소년들의 가장 대표적인 야외활동으로서 매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답사행군은 청소년들을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김일성부자의 혁명활동과 업적에 대한 위대성과 혁명의 난고성을 부각시켜서 김일성부자에 보다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답사행군의 노정은 김일성부자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등을 따라 북한 전역에 구성되어 있으며, 총 길이가 3500리(약 900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천보, 삼지연, 왕재산, 포평 등

을 거점으로 한 답사행군노정은 11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한국, 87.5). 중요한 답사코스로는 삼지연 혁명전적지, 보천보 혁명전적지, 무산지구 혁명전적지, 백두산밀영 혁명전적지를 중심으로 한 백두산일대 두만강연안 혁명전적지, 동북지구 혁명전적지, 왕재산 혁명사적지, 장자산 혁명사적지 등이 있다.

답사행군대는 전지역적으로 소년단 지도원과 사로청지도원, 도, 시, 군단위의 사로청간부, 그리고 표창추천방법으로 선발된 모범 사로청원과 소년단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답사행군은 주관조직 및 대상자, 계절, 코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답사행군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 연구소, 1983; 김갑철외, 1990; 연합통신, 90.11.23, 92.7.23).

국가정기 답사행군 매년 하계(6월~9월말)와 동계(11월~4월말)로 나누어 1년에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답사행군이다. 답사코스는 일반적으로 혜산에서 출발하여 보천보, 포대, 청봉, 삼지연, 백두산, 무포, 대흥단을 지나 백두산밀영까지로 노정의 총길이는 800km에 이르며, 행군기간은 평균 10~20일이 소요된다.

백두산 천리길 답사행군 이 답사행군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역사를 우상화하기 위하여 김일성항일투쟁사에서 최대의 전과를 올린 전투로 기록되고 있는 보천보전투(1937년 6월)와 무산지구전

투(1939년 5월)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백두산 스키 답사행군 이 답사행군은 김정일의 백두산출생설을 뒷받침하고 우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김정일생일(2월 16일)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이 답사행군은 김일성유년시절 혁명역사중 김일성이 12세때인 1923년 3월 26일 조국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당시에 살고 있던 만주의 팔도구(중국 길림성 장백현소재)에서 평양의 만경대에 이르는 천리길을 혼자서 걸어 귀향하였다는 노정을 의미하는 ‘배움의 천리길’을 기념하여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이 답사행군은 김일성이 배움의 천리길을 도보로 행군한 2년뒤인 14세때 1925년 1월 22일 조국광복의 뜻을 품고 고향인 만경대를 떠나 만주 팔도구까지 이르는 천리길을 걸어서 행군하였다는 노정을 의미하는 ‘광복의 천리길’을 기념하여 실시되고 있다.

충성의 소년 행군 이 행군은 전승일을 기념하여 전승혁명사적지를 중심으로 6.25전쟁영웅들의 투쟁정신 따라 배우기, 우리학교—우리초소운동, 전쟁노병, 전사자, 영예군인(상이군인)가족 돕기, 소년호 탱크, 포마련사업,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합

게 실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답사행군으로 김일성이 창덕학교 재학시절 가끔 올라가 조국광복의 꿈을 키웠다고 해서 혁명사적지로 조성된 용악산 혁명사적지에서의 눈길행진, 혜산에서 김정일의 출생지로 지정된 백두산밀영까지 약 200km를 답사하는 백두산밀영 고향집 청년답사행군, 김일성의 혁명활동업적을 김정일에게로 접목시키려는 목적으로 정일봉(김정일)에서 장군봉(김일성)까지의 구간(30km)을 왕복답사하는 정일봉~장군봉간 답사행군, 1962년 8월 20일에서 10월 4일까지 김정일이 직접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학생들을 이끌고 군사야영훈련을 지도하였다고 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어은혁명사적지를 참관답사하는 어은 혁명사적지 답사행군, 김정일의 김일성입학 30주에 때맞춰 시작된 정일봉(백두산)~용남산(평양)간 대학생 답사행군 등이 있다.

답사행군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답사행군의 일정은 유사하다. 답사행군은 주로 출발모임, 김정일의 축하문 전달모임, 결의모임의 순으로 진행된다. 답사행군대는 출발하기 전에 출발모임을 당·정고위간부와 답사행군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기념행사와 함께 성대하게 열린다. 출발모임은 답사행군의 목적과 의의를 비롯하여 답사행군에 대한 김일성부자의 배려와 지원, 청년근위대로서의 청소년역할 등 강조하는 보고와 답사행군대의 깃발수여, 김일성과 당에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준비할 것을 맹세하는 충성의 맹세문 채택순으로 진행된다. 이 출발모임후에 답사행군대는 붉은 기를 앞장 세우고 예

정된 답사노정을 행군하게 된다.

행군도중에 답사행군대는 김정일지도자만을 믿고 따르는 청소년근위대, 결사대가 될 것을 다짐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전보문을 김정일에게 보낸다(국민일보, 93.3.25). 그리고 답사노정중 가장 중요한 장소에서 당정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당중앙위원회명의로 김정일 축하문을 전달받는 모임을 갖는다. 답사행군대가 긴 행군 끝에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면 당정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모임이 열린다. 결의모임을 통하여 답사행군대는 어떤 고난속에서도 김일성부자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모임을 진행한다(내외통신, 93.4.2).

답사행군도중에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 덕성발표모임’, ‘김일성부자의 문헌에 대한 독보회’, ‘충성의 선서모임’, ‘우상가요부르기 노래모임’, ‘강연회’, ‘우등불모임’, ‘회상기연구발표모임’, ‘혁명영화학습’, ‘선전선동경연’, ‘시낭송모임’, ‘글짓기모임’, ‘이야기모임’, ‘혁명박물관참관’, ‘구호문헌참관’, ‘햇불행진’, ‘군사경기’, ‘밥짓기’, 야영훈련 등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여 진행한다. 특히, 김일성부자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연구체득하도록 하는 각종 체험적 사상교양학습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2) 소년단 야영활동

소년단원중 소년단활동에 열성인 청소년들을 매년 모범소년단원으로 선발하여 표창하고, 매년 하절기에 1회 15일간씩 각 시, 군단위에 설치된 소년단야영소에 입소시켜 야영활동을 하도록 한다(서동익, 1987:53). 모범소년단원은 청소년 개개인이 아니라 소년단원의 하위조직인 분단을 위주로 선발된다. 소년단야영소에 입소한 모범소년단원들은 혁명사적지참관을 비롯하여 김일성부자의 우상화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의 사상교양, 체육활동, 문화예술, 오락활동, 군사훈련 등 각종 단체활동을 한다.

소년단야영소의 생활은 군대와 같은 조직규율속에서 생활하면서 받게 된다. 매일 새벽 다섯시에 울리는 기상나팔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기상하게 되면 우선 20분간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후에는 한 시간 이내에 침구정돈, 세수, 외부청소를 한다. 바로 아침 식사를 하는 데, 아침밥은 7시까지 끝내고 운동장에 집합한다. 운동장에 모여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의 선서를 하고, 이 후 수업이 시작된다.

수업은 40분제로 하루에 12시간씩 받는다. 수업내용은 정치학습을 비롯하여 노동실습, 체력단련, 군사훈련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산타기, 수영, 배타기 등의 해양체육이 별도로 실시된다(이항구, 1988:222). 12시간 수업후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2시간의 정치학습을 복습하고 일일생활총화를 2시간동안 진행한후 비로서 잠자리에 든다. 결국 새벽 5시에 기상한 소년단원들은 밤 10시가

되어야 취침하게 된다.

3) 소년과학탐험대활동

소년 과학탐험대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과학탐구심을 배양시키고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과학기술인재의 육성과 과학기술발전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과학탐험활동이다(북한연수소, 1993.10). 이 활동은 1988년 당중앙위 6기 1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세대들에 대한 과학기술교육강화방침’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1989년 8월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매년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고등중학교학생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다.

이 탐험활동은 혁명전적지및 사적지를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 산업시설과 명승고적 등 문화유적을 참관할 뿐만아니라 자연관찰, 동식물채집, 과학자, 발명자와의 만남, 과학이야기모임, 토론회, 탐험발표회, 문화공연 등을 다양하게 진행되는 활동이다(내외통신, 1989. 8.17). 이 활동은 새로운 것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서 그들의 발명 및 창의안을 생산현장에 도입하고자 실시하는 ‘청소년 과학기술행군’과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다.

4) 체육 월간행사활동

체육 월간행사는 방학동안 인민학교 학생과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인한 정신력과 신체단련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북한의 주요 체육행사이다. 체육 월간행사로는 해양체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흑서기인 7~8월중에 실시하는 ‘해양 체육월간’과 동절기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흑한기인 1~2월중에 실시하는 ‘겨울철 체육월간행사’가 있다(평화문제연구소, 1991; 북한연구소, 1992). 체육의 대중화와 전문화방침에 따라 각 종목별 기초이론과 기술습득에 주목표를 두고 청소년들이 방학기간동안 1종목이상의 체육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훈련을 시키고 있다.

해양 체육월간 기간동안에는 수영, 수구, 다이빙 등 해양체육종목과 배타기, 해상수기신호, 뗏목타기, 도강훈련 등 국방체육종목이 실시된다. 겨울철 체육월간은 동계 체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198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체육월간 기간동안에는 스케이트, 스키, 아이스하키, 썰매타기 등 빙상종목과 태권도, 눈길행군, 답사행군, 그리고 남조선달리기, 만경대달리기, 백두산달리기, 보천보달리기 등의 집단달리기 등이 실시되고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생활의 대부분이 조직생활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주의 체제속에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단체의 활동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대표적인 청소년단체인 조선소년단과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을 중심으로 단체의 목적과 의의, 규모, 조직구조, 가입과 탈퇴, 활동사업, 청소년관련시설 등 조직의 형태와 특성을 개괄적으로나마 살펴 보았다. 그리고, 소년단과 사로청의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활동을 정치참여활동, 경제지원활동, 지역사회활동, 문화예술활동, 사상교육활동, 군사교련활동, 야외활동 등 7개활동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청소년단체의 현황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북한 청소년들은 1~2개의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단체로는 조선소년단, 사회주의 노동청년연맹(사로청), 붉은

청년근위대를 들 수 있다. 조선소년단과 사로청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직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청소년단체이며, 붉은 청년근위대는 특정 청소년(고등중학교 5~6학년)만을 대상으로 군사교육이라는 특수한 목적만을 수행하는 청소년단체이다.

조선소년단은 북한 청소년들이 제일 먼저 가입하는 사회단체로서 만 7세에서 13세까지의 청소년들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단원수는 약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로청)은 만 14세에서 30세까지의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청소년조직으로서 현재 맹원수가 500만명에 이르는 북한 최대 규모의 청소년단체이다. 소년단과 사로청은 노동당의 중요한 외곽단체로서 북한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매우 중요한 청소년집단이다. 소년단과 사로청의 목적은 김일성 부자와 노동당에 충성하며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 혁명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소년단은 사로청의 산하단체로서 독자적인 기구가 없이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조직내에 속해 있다. 조선소년단은 해당 시, 군 사로청 소년부의 지도하에 학교별로 조직되어 있다. 사로청은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확고한 수직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위원회는 기능별로 역할이 분화된 여러 부서를 가지고 있다. 지방조직은 도, 시, 군, 리, 읍 등 지역단위와 각 직장, 공장, 기업소, 학교, 군대 등 각 생산단위로 조직된 초급단체가 있다. 학교내에 조직되어 있는 소년단과 사로청은 단체활동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지도원의 지도하에 학급조직을 중심으로 활동한

다.

해당연령층의 모든 청소년이 소년단과 사로청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단과 탈퇴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년단은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중등반에, 사로청은 고등중학교 고등반과 대학교, 직장, 군대내에도 조직되어 있다. 사로청의 경우 고등중학교 고등반때 처음 가입하면 졸업후에도 그 자격이 연장되어 30세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선소년단은 입단식, 소년단명절, 붉은 벙타이와 휘장, 소년단 깃발과 구호, 경례 등 여러 가지 행사와 의식, 상징등을 통하여 소년단원으로서의 명예감, 자긍심, 조직생활에 대한 성실성과 충실성을 길러 주기 위하여 노력한다. 한편, 사로청은 각급 동맹지도기관을 하부에서 상부까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각급 동맹지도기관은 선거받은 조직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로청 맹원들의 각종 모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붉은 청년근위대는 만 14세이상 고등중학교 남학생들로 구성된 예비전력인 준군사조직으로 현재 대원이 약 100만명에 이른다. 붉은 청년근위대는 ‘김일성의 친위대’, ‘당의 전위대’, ‘군 초급간부 보충을 위한 후비대·결사대’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 붉은 청년근위대는 노동당 군사부의 지위통제하에 각 학교별로 정규군과 같이 대대 또는 중대, 소대, 분대 등 군사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 붉은 청년근위대는 군에 입대해도 기초 훈련없이 바로 기

존 병사와의 합동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정규군 장교의 지휘아래 엄격한 군대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활동이 전개되는 대표적인 청소년전용시설로는 학생소년궁전과 소년단야영소를 들 수 있다. 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을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문화예술활동중심의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특별과외활동센터이다. 학생소년궁전은 청소년들이 항상 이용하기 편리한 일상생활권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문학,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등 각종 소조활동에 참여 한다. 학생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실기훈련을 하고 제작및 공연활동도 한다.

소년단야영소는 청소년들의 혁명성을 고취시키고 소년단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수련시설이다. 소년단야영소는 숙박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 설비,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를 제공하면서 야영, 답사, 탐사활동 등 자연체험활동위주의 청소년활동을 실시하는 자연권 청소년전용시설이다. 소년단야영소는 대부분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사적지·전적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청소년단체의 활동내용 청소년단체활동은 노동당에서 하달한 규정을 기본으로 작성된 사로청의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거의 유사한 단체활동을 하게 된다. 사로청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활동은 그 활동의 목표와

성격에 따라 정치참여활동, 경제지원활동, 지역사회활동, 문화예술활동, 사상교육활동, 군사교련활동, 야외활동의 7개 활동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치참여활동은 정치적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치세계를 관찰하고 경험하는 정치체험활동을 말한다. 정치참여활동으로 축하공연과 충성서약행사 등을 통하여 국가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국가행사 참여활동과 당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집회에 참가하여 관계하는 정치집회 참여활동이 있다.

경제지원활동은 국가 경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경제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경제지원활동으로는 바쁜 농촌일손을 돕는 농촌지원활동, 생산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제건설 지원활동, 경제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폐품수집을 하는 꼬마계획,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헌납하거나 외화획득사업에 참여하는 좋은 일하기 운동 등이 있다.

지역사회활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현장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사업에 협조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이다. 지역사회활동으로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가꾸고 지역사회공사를 참여하는 지역사회 환경정리활동, 당정책이나 새로운 기술 등을 사람들에게 홍보 및 계몽하는 소년선전대활동, 사회의 기초질서를 유지하는 학생규찰대의 사회질서 유지활동, 군민간의 일체감조성을 위한 군인위문활동 등이 있다.

문화예술활동은 음악, 미술, 영화, 문학, 체육 등 이분야에 대

한 기본적인 안목과 배양을 목적으로 한 활동이다. 문화예술활동으로는 1인1기의 원칙하에 자신의 취미나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소조활동과 국가서 장려하고 있는 문학작품을 접하고 토론하는 문화예술모임 등을 들 수 있다.

사상교육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공산주의적 가치, 태도, 행동을 형성하기 위한 공산주의 이념교육을 말한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김일성부자의 저작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습활동, 자신과 타인의 생활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생활총화모임, 각종 사회교양기관과 기념물에 대한 견학및 답사활동을 들 수 있다.

군사교련활동은 ‘전인민의 무장화’라는 명목하에 청소년들에게 군사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군사관련교육과 훈련을 의미한다. 군사교련활동으로는 제식훈련을 비롯하여 간단한 사격훈련과 전술훈련을 실시하는 예비적인 군사훈련과 초보적인 군사훈련종목이 가미되어 있는 국방체육활동을 들 수 있다.

야외활동은 일상 생활권에서 벗어나 자연속에서 집단야영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체험중심활동을 말한다. 야외활동으로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답사행군, 소년단 야영소에 입소하여 실시되는 소년단 야영활동,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업시설및 생산현장 등을 방문하는 소년 과학탐험대활동, 정신력과 체력단련을 위하여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체육 월간행사 등이 있다.

이러한 북한 청소년단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북한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에도 필요하지만 남북한 청소년동질성회복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보면, 북한 청소년단체활동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 청소년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조직된 자율적인 민간단체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의지를 기초하여 조직되어 국가가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며 제반지도 감독하는 국가조직의 하나이다. 북한 청소년단체는 국가의 모든 핵심으로서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전국 각지에 조직되어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고 실천하는 당의 인전대, 후비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당은 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활동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청소년활동사업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활동의 이념, 목적, 내용및 실행방법 등은 노동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하는 방향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소년단체활동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노동당의 직접적인 주도와 계획하에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통제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청소년단체활동은 당의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 경직성을 띠게 되고 전국적으로 표준화·일원화되어 있다. 또한, 소년단 또는 사로청이외에는 청소년단체가 없을 뿐만아니라 해당연령 청소년 모두가 자신

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자율적 선택이 없으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활동프로그램에 따라 타율적인 조직활동을 보내게 된다.

둘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들의 심신발달, 능력개발, 여가선용 등 청소년들의 복지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가 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을 조직생활을 통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산주의적 인간, 즉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공헌할 수 있는 혁명가로 양성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직되어 청소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들은 국가의 시책이나 당의 노선에 따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국가정책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들의 필요, 요구, 흥미 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단순한 청소년활동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국가목표에 따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단체활동은 국익증진이나 국가적인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힘을 단체를 통하여 조직통합하여 국가개발사업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청소년중심 활동보다는 의식개혁, 경제개발, 국가방위, 정책홍보, 사회참여

등 국가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국가정책 관련활동이 최우선시되어 중점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들의 전체생활과 활동속에 통합되어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단체활동은 학교의 교과활동에 부수적인 것이거나 별개의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통합되어 있다. 청소년단체조직은 학교조직과 분리된 별도의 독자적인 조직이 아니라, 학교행정의 2원적 체계에 의하여 학교내에 학교교육(주로 교과교육)관련조직과 함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2원적 체계하에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활동 전담교원인 지도원의 지도하에 학교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과교육과 밀접한 상호협력관계를 이루면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활동은 어떤 특정한 활동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들의 모든 생활영역에 매우 넓고 밀접하게 퍼져 있다. 청소년단체활동은 계획적인 공산주의 교육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치사상교육을 비롯하여 과외학습, 과외활동, 규율, 생활지도, 여가생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혼자서 활동하는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가질 수 없으며, 항상 여러 사람, 특히 유사한 연령의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사로청주관하의 크고 작은 여러 조직이나 모임활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거의 모든 생활과 경험은 단체의 조직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절대적이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단체활동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청소년 단체활동을 공산주의교육의 일환으로 계획된 국가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단체활동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매우 철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조직의 하나인 북한청소년단체가 철저한 국가통제하에 실시하고 있는 일원화된 청소년단체활동은 각기 다른 이념과 목표를 가진 자율적인 민간단체인 남한 청소년단체가 정부의 간섭과 통제없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단체활동과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 무엇보다 철저한 집단주의체제속에서 집단중심의 조직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청소년들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개방적인 민주주의체제속에서 집단보다 개인중심의 생활을 하는 남한 청소년들과는 상당한 이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승계세대인 남북한 청소년들의 이질화현상을 극복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회복시켜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묶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치관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청소년들의 모든 생활실태와 제반실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연구가 선행되어 남북한 청소년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강광식편저(1987). 북한의 실태:분야별 경험자료및 예비적 고찰.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강정구, 정대화외(1992). 우리들의 절반 북한 백문백답. 사계절.

강정구의(1990).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

길성철(1984).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김갑철외(1990). 북한학개론. 문우사.

김균태편(1993). 안경없는 군대이야기. 의암출판.

김동규(1990). 북한의 교육학. 문백사.

김석범(1993). 사랑으로 쓰는 교육수첩. 물결.

김용(1993). 머리를 빠는 남자. 도서출판 자작나무.

김현희(1991).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서울:고려원.

김형찬외(1990). 북한의 교육. 서울:을유문화사.

남북문제연구소(1994). 탈북자가 증언하는 북한의 현실. 남북문제연구소.

내외통신사(1987-1995). 내외통신종합판. 내외통신사.

- 노동은, 송방송(1990). “북한 음악의 이해”. 김문환, 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91-202.
- 노재승(1989). “북한 영화의 개관과 이해”, 김문환, 북한의 예술, 을유문화사, 351-408.
- 동아일보사(1995.1). 김정일 북한 대백과. 신동아 별책부록. 동아일보사.
- 란코프(1991). 평양의 지붕밑. 연합통신
- 마레츠키(1991). 병영국가 북한. 동아일보사.
- 문교부(1987). 북한의 현실. 문교부.
- 민족지성편집실(1989.5). “죄담, 북한의 청소년생활”. 민족지성.
- 민족통일중앙협의회(1990). 북한편람. 서울:민족통일중앙협의회.
- 박성희(1991). 북한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박성희(1995). 북한청소년의 생활. 공보처.
- 박영규(1995.10).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14-119.
- 백남룡(1992). 벗. 서울:살림터.
- 북한연구소(1985-1995). 북한. 북한연구소
- 북한연구소(1986). 북한총람. 서울:북한연구소.
- 서동익(1987). 북에서 사는 모습. 북한연구소.
- 서성우(1990, 9). “노동당과 사회단체의 관계”,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안보연구, 171-190
- 송광성외(1993). 북한 청소년의 생활. 한국청소년개발원.
- 송철복외(1990). 북한의 인권. 고려원.

- 신철균(1990). “북한의 정당.사회단체현황”.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 안동일(1990). 갈라진 45년 가서 본 반쪽. 돌베개.
- 양은식(1988). 분단을 뛰어넘어. 도서출판 힘.
- 양태진, 이서행(1983). 분단시대의 북한 상황. 대왕사.
- 연합통신(1991). 북, 행복도 강요되는 땅. 서울:연합통신.
- 이변수(1979). “사로칭의 기능과 역할”. 한양대 중소연구.
- 이상우외(1988).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 이영화(1994). 평양 비밀집회의 밤. 동아출판사.
- 이찬삼(1991). 평양특파원. 서울:중앙일보사.
- 이항구(1988). 북한의 현실. 신태양사.
- 전철우(1994). 평양놀새, 서울 오렌지. 자유시대사.
- 조광동(1991). 더디가도 사람생각하지요. 도서출판 지리산.
- 조명훈(1988). 북녘일기. 도서출판 산하.
- 조선일보사(1991). 북한, 그 충격의 실상:살아본 사람과 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조선일보사.
- 조재길(1990).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삼민사,
-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1991. 1~1995. 9)
- 중앙일보사(1991). 북한소사전:최신 자료로 본 북한의 모든 것.
- 채학선(1994). 정말 이럴 수가!. 연합통신.
- 최상순(1993). 나의 교단. 물결.
- 통일원 통일연수원(1990). 민주통일론:북한실태. 통일연수원.

- 통일원(1991). 남북한 사회·문화지표.
- 통일원(1992). '92 북한개요. 서울:통일원 정보분석실.
- 평화문제연구소(1985-1995).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 한국조사기자회(1993). 그리운 산하. 보고픈 북녘.
- 홍정자(1994). 내가 만난 북녘 사람들. 살림터.
- 황병선외(1993). 기자들이 가 본 북한. 도서출판 다나.
- 황석영(1993). 사람이 살고 있네. 시와 사회사.

(2) 대학생들의 북한방문 및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 현황

일 시	신 청 자	교 류 내 용
1989. 9. 7	경희대 사학과	고구려문화권 유물·유적 답사를 위한 방북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9. 18	연고대 총학생회	「'89 정기연고제」행사에 재북한 동문 및 북한학생 초청 제의
9. 24~10. 1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90년 방북학술답사 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1990. 4.	중앙대 예술대학생회	남북대학생 예술작품교류전 개최 제의
5. 8	영남대 총학생회	세계한민족 대학생 학술세미나에 북한학생 (김일성종합대학 재학생) 초청 제의 (정부승인, 불성사)
5. 9	경기대 관광학과	금강산관광개발 방북학술답사(10. 1~8)를 위한 방북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5. 25	한민족대학생연합회 (비운동권단체)	1천만 이산가족 상호왕래 및 남북 학생교류 제의
6. 2	경희대 사학과	고구려문화권 유물·유적답사 및 공동 세미나를 위한 방북신청 (정부승인 불허)
6. 27~8. 2	원광대 원불교학과	북한지역 심장병어린이 치료를 위한 싸이클국토순례 신청 (정부승인 유보)
10. 12	전대협 동부지구소속 3개 대학 (경희대·한양대·외대 총학생회)	통일학술제 행사에 북한대학생 초청을 위한 남북대학생 접촉신청 (정부승인 불허)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 현황

(1) 청소년 유관단체들의 남북한 청소년교류 추진 현황

일 시	신청 단체	교 류 내 용
1991. 2.	한국해양청소년단연맹 사무국장 김현리	북한의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위원장 접촉신청 : • 남북청소년의 공동수로탐사 및 「제11회 전국해양제전 및 아시아·태평양 청소년 해양축제 참가 요청」 • 91년 3월 일본해양소년단 사무국장을 통해 북한 참가자와 간접접촉 • 92년 4월 북한의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위원장과 재접촉 시도했으나 실패
7.	서울청년회의소장 전재현	평양소년축구단 교환경기 개최제의
7.	불교청년회 배영진외 4명	소련에서 개최된 불교전법식 참석
8. 1	한국우주소년단연맹 총재 이상희	「93 대전엑스포 세계우주단대회」 북한 청소년 초청 제의(정부승인)
10.	대한 스키협회 윤항구	「제2차 아시아 주니어 알파인스키 대회」초청 신청
1992. 1.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서울지회장 이승우	「남북어린이 환경보호 글짓기 공동 개최」 제의
2. 21~28	대한호국청소년육성회 회장 이기남	• 한민족 역사유적지 탐방과 남북 청소년 교류 및 공동참가 제의(정부승인) • 북경에서 북경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을 접촉하여 교류 관련자료를 북한의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위원장에게 전달요청
11.	코오롱상사 이사 원용권	「학생구간마라톤대회」에 북한 초청 제의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1991. 7~1992. 11),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체육청소년부 교류과 자료

일 시	신 청 자	교 류 내 용
1992. 7. 18 ~8. 25	증산도 전국대학생연합회	「국통중단 대장정 및 백두산개벽 대전제」 개최를 위한 방북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7. 25~8. 10	조선대 싸이클동우회	세계싸이클일주관련 북한지역통과 신청 (정부승인 불허)
8. 6~15	충남대 총학생회	남북한 고적답사 및 순례 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8. 7~21	서울대학교 총산악회	백두산 등정 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8. 21~24	전국대학생원리 총학생회	「세계대학생 총회」에 북한학생 초청 (정부승인, 불성사)
10.	서울산업대 야간 총학생회	판문점 경유한 백두산순례대행진을 위한 방북신청
11. 3~6	외국어대 모의 UN위원회	남북학생 모의 UN총회 개최 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 자료 : 통일원 교류협력국(1991. 7~1992. 11),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김봉구(1992), “남북대학생교류의 범위와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일 시	신 청 자	교 류 내 용
1991. 7.	불교청년회 배영진 고려대 배우성 서울지역대학생기자 연합	소련에서 개최된 불교전법식 참석 북경외국어대학 북한학생 접촉 • 북한학생·주민 실태를 위한 북 한주민접촉 신청 • 판문점에서 남북예비실무접촉 (8.21)
7. 29~8. 1	증산도 전국대학생연합회	전통적 제천의식(대천제) 백두산 거행 산청(정부승인, 불성사)
8. 10~20	원불교 전국대학생연합회	백두산 통일기원 큰법회 개최신청 (정부승인, 불성사)
9.	연고대 총학생회 (조통위계열)	「91 정기연고제」에 김일성대학과 교수 초청을 위한 북한주민접촉 신 청(정부승인 불허)
9.	장로회 신학대 총학생회	남북신학생교류 협의 및 공동예배 개최 신청(정부승인, 불성사)
9. 17	건국대 국어국문과 김호상 등	—북한의 언어와 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북한지역 학술답사 망북신 청(정부승인) —두차례 남북예비실무접촉 성사 (정부주선 9. 18과 9. 24)
10.	한양대 총학생회 (조통위계열)	한양대와 김책공대간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북한주민접촉 신청 (정부승인 불허)